

文대통령, 오늘 후보회의... '4차 유행 눈앞' 방역 메시지 내나

코로나 확진자 500명대 속 방역·경제 당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의를 주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4일) 기준 5일째 500명대를 기록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하루 평균 5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다시 유행이 커지는 경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야 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되찾은 우리의 봄은 지난 겨울보다 힘겨워질지도 모른다"면서 "특히

4월부터는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로 6월까지 이들의 접종이 잘 마무리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4차 대유행의 중대 갈림길에 선 만큼 문 대통령이 이날 후보회의에서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을 각별히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최광수기자



[칼럼] 제76회 식목일 기후변화에 밀려 당겨질지도

오늘은 너도나도 다 아는 '식목일'이다. 1946년 제1회 식목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벌써 76번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자연적 변화가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식목일에 대한 변경 문제가 이슈로 뜨고 있다.

이미 3월이면 요즘처럼 봄꽃이 만개하여 나무 심기가 충분함에도 4월 5일까지 가야 하느냐가 공감대를 얻은 것이다.

산림청이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천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 심기 기간을 앞당겨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고 3월 중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56.0%가 찬성했다.

반대로 현재 그대로 식목일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은 37.2%에 불과했다. 기록에 따르면 제1회 식목일이 있었던 1940년대 4월 5일 서울의 평균 기온은 7.9도였는데 2010년대에는 이 기온이 9.8도까지 높아졌다.

지금까지 오래도록 기억했던 식목일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날씨 2도의 차이를 과연 일반인들이 느낄까 싶다.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이런 일에 돈 써가며 일을 만든다는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1910년 순종이 친경제(親耕祭)를 거행할 때 친히 나무를 심은 것에서 유래된 식목일은 1949년 4월 5일을 법정공휴일 식목일로 제정되었다가 2005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외됐다.

그동안 식목일은 전국 관공서·기업·학교·군부대 등에서는 대규모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고 산림청에서는 수종별 특징과 식재 기준, 그루당 비료의 량 등의 기준을 마련해 심도록 권장하는 등 이날 만큼은 요란을 떨었던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장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목일 행사는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이창에 산림청장 인터뷰를 신청했더니 3월에 취임하여 인사 다니기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해로 연기했다.

신임 산림청장은 어떤 인물일까. 먼저 산림청은 1967년 1월 발족하여 현재는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본청에 2관 3국 3단 22과 4팀, 5개 소속기관까지 총 정원은 1,744명에 이른다.

신임 최병암 청장은 중앙대 법학과와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치고 영국 리즈대 지구환경대학원 생태경제학 석사코스까지 밟은 인물이다.

산림청 행정사무관으로 산림청에 입사한 후 산림정책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 복지국장, 보호국장, 이용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바 있으며 기획조정관으로서 2021년 3월 산림청장으로 부임했다.

한눈에 봐도 프로필이 산림의 전문가다. 이런 전문가가 와야지 산림의 산자도 모르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대표 자리에 앉는다면 어찌 될까. 역대 청장을 살펴보면 52년 동안 33번이나 바뀌었으니 평균 2년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3월 29일 온라인 취임식을 마친 최 청장은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래서 한 분야의 리더는 해당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것이다.

이 같은 비교를 굳이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나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자리를 차고 앉아있는 현상을 지적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과거의 정승·판서를 동네 친구들 딱지나 구슬 나누듯 나눠주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며 야당 또한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감이 잡힐 정도로 견제나 대안 마련이 무능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일반 국민들이 평소 잘 모르고 있는 산림청에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1,744명이라는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것일까.

대략한 살펴보면 산촌활성화지원, 숲길의 차마 진입제한,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완화, 지정산림문화자산 보호·관리 실태 점검, 치유의 숲 조성 규제 완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관 지정, 도시숲법 시행 및 산림기술훈련에 조정, 석재 채취업·석재 가공업 등록 정원치유, 산불 진화장비 품질인증, 백두대간 및 정맥의 보호관리, 국립수목원, 식물상 지역과 식생기후대 재정립 등 수 백가지도 넘지만 대충 보면 산림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 업무가 다 있다.

특히 산불 관련 재난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 인력, 장비, 지원시스템을 체계화시킨다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신형 위치 확인 시스템 산불재난안전통신기 1만 5천 대를 전국 산불감시원, 진화대원공무원에게 보급하여 현장상황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산불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 전송으로 산불의 빠른 신고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올해 2월 20일 발생한 강원도 정선 야간산불에서 산불대응센터의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신속히 대응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올해 전국적으로 51개소를 2022년까지 총 132개소를 구축하면 전국 산불진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1년부터 산불 건수와 면적을 보면 277건에 1,090ha였다가 2017년부터 692건에 1,480ha로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2019년에는 653건에 3,255ha, 2020년에는 620건에 2,920ha로 늘어나 갈수록 심각한 상황임이 증명됐다.

심는 것 못지않게 보호하는 노력은 산림청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할 숙제다. 숲은 자연이 인간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유일한 산소호흡기다.

덕암/김균식

박영선-오세훈, 오늘 마지막 TV토론 격돌- '거짓말 의혹이나, 정권심판론이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일 오후 2시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TV토론에서 격돌한다. 박 후보는 '오 후보 거짓말 의혹'에, 오 후보는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을 방침이라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박, 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TV토론으로 서만 세번째 격돌이다. 이날 토론은 4·7 보궐선거일 이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토론이다.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이날 토론은 접전이 예상된다.

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내국동 망 의혹을 둘러싼 의혹들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박 후보 측은 처가의 내국동 땅을 몰랐다가거나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했던 오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나아가 오 후보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까지 거론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오 후보는 당시 내국동에서 생태탕 식당을 운영했던 A씨의 증언이 달라졌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오 후보는 "박 후보도 이제는 좀 이성을 되찾고, 비전과 정책 위주의 토론을 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며 "이 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불미스러운 일이 계기가 돼서 치러지는 선거 아닌가"라고 역공했다.

두 후보는 이날도 서울 집중유세전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전통적으로 당 지지세가 강한 서남권을 돌 예정이다. 강서구에서 출발해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를 가로지르며 표심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오 후보는 '스마일 이모티콘'을 연상시키는 동선으로 막바지 유세를 이어간다. 강서구 등촌역·양천구 목동역·영등포구 대림역 순으로 차량 유세를 한 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앞, 강동구 천호역에서 마무리 유세를 한다.

최만식기자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강화 '찬성' 73.2% vs '반대' 24.7%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리얼미터가 YTN(더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3.2%(매우 찬성 37.9% 어느 정도 찬성 35.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24.7%(매우 반대 8.2%, 어느 정도 반대 16.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였다.

대전·세종·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찬성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찬성 85.0% 반대 10.7%)와 인천·경기(76.1% vs 23.1%), 서울(76.0% vs 22.3%), 부산·울산·경남(71.7% vs 26.5%)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찬성' 53.7%, '어느 정도 찬성' 31.4%로 광주·전라 거주자 10명 중 절반 정도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찬성' 49.9% vs '대' 44.2%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찬성 77.7% vs 반대 19.1%)과 30대(75.5% vs 23.7%), 50대(75.0% vs 22.8%) 3명 중 2명 정도는 찬성 응답이 다수였다.

40대(73.8% vs 24.6%)와 60대(73.7% vs 24.6%), 20대(64.7% vs 31.9%)에서도 반대 대비 찬성 응답이 많았다.

이념성향에 무관하게 찬성이 다수였다. 특히 진보성향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4.8%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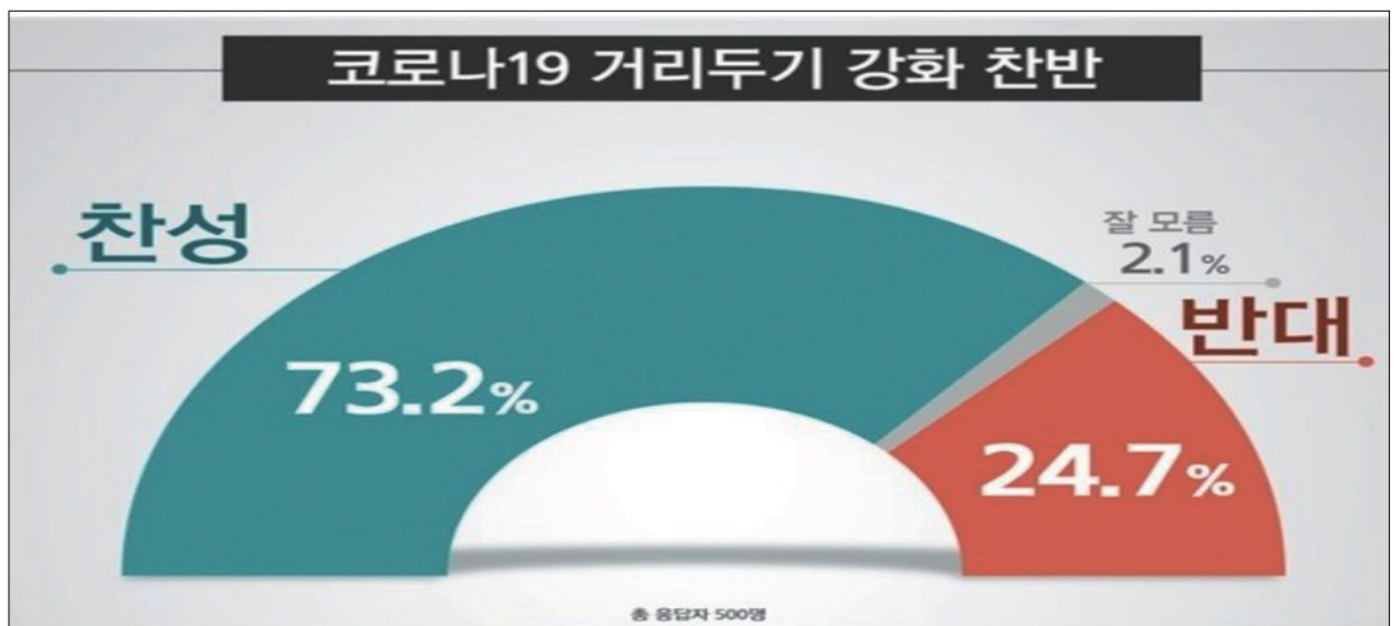
보수성향자(찬성 66.6% vs 반대 32.9%)와 중도성향자(66.3% vs 30.3%)에서도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광수기자



용인시, 법정 문화도시 가치와 비전 공유

전문가 특강으로 부서 간 공감대 형성 나서

용인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부서 간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위해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지난 2일 '문화도시의 이해와 문화도시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은 법정 문화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문화도시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행정의 역할과 시민 주도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특강에는 오후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아트지기' 소속의 이은경·이건한·유진선·명지선 의원과 문화도시에 관심이 있는 김상수·남홍숙 의원, 정길배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도시 T/F팀, 협력부서,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정 문화도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개 지자체를 지정해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5년간 최대 20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용인형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지난달 문화도시



T/F팀을 구성하는 등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조직 내 협력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간담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후석 제1부시장은 "법정 문화도시시는 시민 스스로 지역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

획·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의 역할이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도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 농번기 농업인 일손 부족 해소 앞장!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이 농번기 농업인 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기두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마무리된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돼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은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태안군수는 농번기 마을의 공동급식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일수는 60일 이내다.

마을공동급식 신청서가 제출되면



결정기준 등을 정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 실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완료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례로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조례는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공포될 예

정이다. 김기두 의원은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군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봉화군, 박형수 국회의원과 '2022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봉화군과 박형수 국회의원은 2022년 국비 예산확보 및 군정 역점사업에 대한 국회와 지자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2일 오후 5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국비예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박형수 국회의원의, 임태항 군수를 비롯한 경북도의원, 군의원 및 관련 실과단소장 등이 참석했다.

봉화군은 당면 역점사업 현황으로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군민 직접참여 녹색에너지 사업,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테마 전문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호골산 관광명소화 사업, ▲백두대간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와룡-법전 국도건설공사, ▲봉화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립문화재 수리재료센터 건립 등 2022년 국비지원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공유 및 향후 국비확보에 국회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임태항 봉화군수는 "박형수 국회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우리 군에서 국비사업으로 요청한 국도 35호선 선형개량공사와 국립청소년산림생태센터,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등 대규모 국가투자 예산의 원활한 확보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

한 2022년 국비확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반식/기자

대전시, '도심 속 푸른 물길' 시민과 함께 열어!!!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9명 구성, 시민협의회 발족

대전시의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도심하천 인프라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의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2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에 출범한 시민협의회는 시의원, 환경, 교통, 경관,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 3대 하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과 특수성을 고려한 하천의 관리·활용방안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도심 속 푸른물길 프로젝트'의 중추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하천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하천 중심의 특색있는 지역문화가 조성되고 공동체문화의 가치와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변공간 조성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7월 3대 하천을 재해예방과 함께 테마가 있는 미래형 시민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국비 등 4,680억 원을 투입하는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기후변화로 점차 심각해지는 하천 재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시민협의회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테마가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대 하천 그린뉴딜을 통해 하천이라는 공동의 생활공간을 기

반으로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부회장 박부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편집국 : 02)2612-295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이용섭시장, LPG충전소 화재현장 찾아 진화독려

탱크 폭발 등 2차 사고 발생 않도록 완전무결한 진화 당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4일 오전 광산구의 한 LPG충전소 화재 현장을 찾아 진화상황을 점검하고 폭발 등 2차 사고가 없는 완벽한 진화를 당부했다.

이곳 LPG충전소에서는 3일 오전 1시26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차된 1톤 트럭이 전소되고 작업장과 사무실이 일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이 시장은 현장에 설치된 광주소방안전본부 119긴급구조통제단에서 LPG충전소 화재발생 경위, 피해 및 진화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곧바로 진화 현장으로 이동해 신속하고 완벽한 진화를 주문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 소방안전본부, 가스안전공사, 광주시 및 광산구청 관계자 등에게 최초의 화재발생 경위, 지하 저장탱크의 안전 여부, 완전한 진화 방안, LPG충전소 안전기

준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 현장에서 화재 진화에 여념이 없는 소방관과 광주시·광산구 및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의용소방대원 등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LPG충전소 화재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폭발 등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무결한 진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곳 LPG충전소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관 160여명과 소방차 등 43대의 장비가 긴급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펼쳤다. 광주시도 공무원들을 급파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 충전소 지하 저장탱크에 남아있는 잔류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소각작업과 분무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이용섭/기자



문준희 합천군수, 저출산 극복 포(4)합 챌린지 동참

문준희 합천군수는 최근 저출산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극복하고자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4)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충청남도에서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하여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함께 극복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저출산은 국가적인 위기로서 군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다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합천군도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지원 확대, 보육 환경 개선 등 아이 낳고 키우

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현재 출산 시 출산축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출산장려금(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둘째와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급하고, 혼인 부부에게 3년간 200만 원의 혼인부

부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문준희 합천군수는 구인모 거창군수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으며,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한정우 창녕군수를 지명했다.

최광용/기자



대전시 허태정시장, 시기자단과 함께 '토요산책 대전이 좋다'

4월 3일, 새 단장이 한창인 엑스포 재창조 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



허태정 대전시장은 3일 오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로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대전시 출입기자단'

20여 명과 함께 토요산책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형 뉴딜의 전초

기지인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홍보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준공을 앞둔 사이언스콤플렉스와 대전국제컨벤션센터(DICC) 건립 현장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다.

허태정 시장과 출입기자들은 이날 통일관에 둘러 과학기술로 들여다보는 통일한국에 대해 4D영상을 시청하고, 한빛탑 전망대에 올라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DICC 추진상황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를 둘러봤다.

대전시는 내년 4월 DICC 완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DICC가 완공되면 대전은 연면적 49,754㎡, 전시홀 10,151㎡, 국내 6위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보유하게 된다. DICC는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행사의 주무대로 쓰일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대전은 과학 마이스(MICE)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취)대전시세계에서 시공중인 지상 43층 규모의 사이언스콤플

플렉스 타워를 둘러보고 마무리에 한창인 엑스포과학공원과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잇는 제2엑스포교를 조망했다.

대전 중앙과학관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는 지난 2월말 준공돼 오는 8월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준공되는 시점에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새단장을 마친 한빛탑은 미디어퍼사드 콘텐츠로 야간에 아름다운 빛을 수놓으며, 음압분수대와 함께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의 랜드마크로 건립될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국제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한빛탑을 중심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이 쇼핑과 과학, 비즈니스, 여가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이승로 성북구청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3일 아내 임명숙 씨와 함께 성북구 석관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을 찾아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이날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석관동 주민센터는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

고 투표를 마친 이승로 구청장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안심하고 투표하러 오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이번 사전선거에 참여가 어려웠던 분들을 오는 7일 본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성훈/기자

김정섭 공주시장,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전점검 실시

공주시 예방접종센터, 만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만전

김정섭 공주시장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의 총남도 현장평가 모의훈련을 앞두고 지난 3일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김 시장은 백제체육관에 마련된 공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모의훈련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사전 준비부터 예진,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모의훈련 진행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접종구역 안에 있는 백신 관리실의 초저온냉동고와 백신 냉장고 등도 살펴봤다.

5일 충남도와 함께 실시하는 모의훈련은 예방접종센터 운영 적절성 검토 및 이상반응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해 사전 준비부터 접종 직후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업무 단계를 포괄하는 훈련이 진행된다.

김정섭 시장은 "모의훈련에서



나은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 예방접종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화이자 백

신을 공급받는 데로 접종에 동의한 만 75세 이상 주민 약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예진 의사 4명과 간호사 13명, 행정요원 등 총 40여 명을 투입할 예정

김원호/기자

함안군,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발굴단 정기회의 개최

군민 수요 반영한 서비스 향상 도모

함안군은 2021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발굴단'을 구성하고 지난 2일 오후 3시,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첫 정기회의를 가졌다.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발굴단'은 지역현안 및 군민수요를 파악하여 민원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발굴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굴단은 노인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지역단체장, 군청 관련부서 부처장, 이장단 등으로 구성됐으며,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의 개선사항을 제안하면 필요성, 실현가능성, 관련규정 등을 검토해 군민중심 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조근제 함안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첫 정기회의에서는 발굴단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0년 민원행정 주요성과와 2021년 분야별 민원



행정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의견수렴 및 기타토의의 시간도 가졌다.

조 군수는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발굴단 운영을 계기로 '새롭게 함께 뛰는 함안'에 부합하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가 펼쳐질 것 기대한다"며 "내외부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민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고 민원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강동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4월 1일 아동학대에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강동구가 4월 1일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조사와 판단, 아동 보호 조치를 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경찰과 의료기관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강동경찰서, ▲강동경희대병원, ▲올바른서울병원, ▲온맘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협의를 거쳐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구는 피해아동의 진료 및 검사, 검진 의뢰와 의료비를 지원하며 강동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및 안전확보, 피해회복을 위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강동경희대병원과 올바른서울병원, 온맘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피

해아동의 우선 진료 및 신체적·정신적 검사와 검진,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 의료기관들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즉각분리제도로 학대의심 아동의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동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공동 대응에 협력해 주신 강동경찰서와 강동경희대병원, 올바른서울병원, 온맘정신건강의학과의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과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동대문구 구민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34만 전 주민 대상, 3월 27일부터 효력...사망, 후유장애 시 1천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등



동대문구가 34만 전 주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했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제공에 나선 것이다.

구는 올해 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3월 27일부터는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3월 27일에서 2022년 3월 26일까지며, 이 기간에는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동대문구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사망 1,000

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위로금 30~7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사망 시 15세 미만, 벌금·변호사 선임 시 만 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보장하는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안전한 동대문구, 마음 놓고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금천구, 공군부대 이전의 꿈 구민과 함께 이룬다

금천구, '공군부대 이전 추진 구민위원회' 구성

금천구가 금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군부대 이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공군부대 이전 추진 구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4월 9일까지 참여위원을 모집한다.

구는 도심 한가운데 입지하고 있어 수십 년간 지역발전 및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공군부대 이전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 공군부대의 이전 후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공군부대 이전부지 마련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정책 결정을 위해 구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금천구민으로, 동별 2명씩 총 2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금천구청 11층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별 구분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민위원을 선정하고, 결과를 4월 12일(월) 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구민위원으로 선정되면 공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공군부대 이전 사업은 2008년 공군부대 부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시작됐다. 구는 2012년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사업이 무산되자, 2015년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공군부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공군부대 이전 후보



지를 검토해 국방부에 이전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모든 지자체가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군부대 부지의 완전 이전 후 개발을 위해 수년간 노력했으나, 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로 작용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및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미성/기자

성동구, “쓱쓱 쓱쓱”쓰레기로 가득찬 주거 취약 가구 주거환경 개선

마장동 민·관 협력으로 쓰레기로 가득찬 장애인 가구 대청소 실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주민센터는 지난 달 3월 30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내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대상 김○○은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 이혼을 겪으면서 정신장애를 갖게 된 안타까운 사연의 소유자다. 처음엔 증세가 심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20년 이상 함께 살던 모가 최근 사망하면서 혼자 살게 되었다. 그 후 일상생활이 어려워 집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쓰레기 및 불필요한 물품들이 방 안에 가득 쌓이게 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해졌다.

이에 평소 대상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 대상가구를 주민센터에 의뢰하여 직원들이 방문하였으나 처음에는 집 정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수차례 방문하여 대상자를 설득하여 집 청소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신장애로 대화가 어려웠지만 곳곳에 쌓여 있는 어머니 유품들이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고, 자신이 스스로 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는 것에 미안해 했다. 마지막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맙다며 봉사자들에게 인사하였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성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코로나로 함께하기 힘든 시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대상자가 지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려움을 겪는 또다른 가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준 마장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더불어 행복한 마장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내 마음 속 환경사랑 표현해요...환경 그림·글짓기 대회 개최

제26회 환경의 날 맞아 '환경사랑 그림·글짓기 대회'참여 작품 모집

광진구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환경의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환경사랑 그림·글짓기 대회'참여 작품을 모집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제26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해당 연령대 어린이·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2개 분야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 ▲환경에 대한 소중함·중요성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 생활 속 환경보호활동 ▲환경보호 체험 사례 등 환경 분야 전반에서 평소 느꼈거나 경험했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공모형식은 그림그리기의 경우 초등학생 저학년은 8절지에,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은 4절지에 수채화, 크레파스화, 유화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글짓기의 경우 산문 또는 운문으로 작성하면 되며, 분량은 A4용지 3매 또는 200자 원고지 6매 이내이다.



시상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주제성, 작품성, 공감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후, 5월 중 분야별로 최우수 4점, 우수 4점, 장려 5점 총 26점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응모작품과 응모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오는 30일까지 광진구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글짓기 참여 학생은 이

메일로도 제출 가능하다. 수상작은 작품모음집으로 발간해 환경·에너지정책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환경사랑 작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사람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강동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강동구가 4월 1일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조사와 판단, 아동 보호 조치를 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경찰과 의료기관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강동경찰서, ▲강동경희대병원, ▲올바른서울병원, ▲온맘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협의를 거쳐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구는 피해아동의 진료 및 검사, 검진 의뢰와 의료비를 지원하며 강동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응급보호 및 안전확보, 피해회복을 위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강동경희대병원과 올바른서울병원, 온맘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피해아동의 우선 진료 및 신체적·정신적 검사와 검진,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 의료기관들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즉각분리제도로 학대의심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동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하고 있다.

황규석/기자

서울문화재단-서울시여성가족재단공동기획 콜로키움 '나를 만나는 돌봄과 예술교육'

공적 아동 돌봄 영역에서 '지역예술교육TA'의 예술교육 지향점에 대한 발제 및 토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중휘)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과 공동 기획한 콜로키움 '나를 만나는 돌봄과 예술교육'을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특별시 제2호(동작) 거점형 키움센터(동작구 노량진로 10)에서 개최한다.

이 콜로키움은 서울시 공적 돌봄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신설한 지역예술교육TA(Teaching Artist, 교육예술가)가 지향하는 바를 고민한 첫 번째 행사다. 공적 아동 돌봄 영역에서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와 토론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서울문화재단은 기존에 학교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예술교육을 올해부터는 지역예술교육으로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인 키움센터뿐만 아니라 자치구 문화재단에서도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예술교육TA' 분야를 신설했다.

첫 번째 발제 세션에서는 ▲'공적 아동돌봄 영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무엇인가?': 서울시 아동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교수) ▲'돌봄 영역에서의 예술 경험: 예술가의 희망사항'(국동완 시각예술가)을 발표한다.

한편, 양혜정(연극놀이 전문가)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토론 세션에서는 '돌봄과 예술교육이 공유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서울시 공적 돌봄 현장의 조건에서 그 가치는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김미은(전 서울문화재단 어린이TA), 김혜경(우리동네키움센터 노원13호점 센터장), 김미선(그리다북그리다북 강사), 김아래미(서울여대 교수), 국동완(시각예술가) 등 각 분야의 현장 실천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번 행사는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팍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속기를 통한 문자통역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행사 종료 후 자막해설 서비스가 포함된 발제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김중휘 대표이사는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서울문화재단 학교예술교육의 가치가 공적 돌봄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공동 기획한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돌봄 예술교육을 둘러싼 각 주체들이 서로 이해하며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은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예술 수업을 진행할 교육예술가(TA)를 선발하는 '2021 지역예술교육TA 공모'를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3인 이하로 구성된 팀 단위로 지원이 가능하며, 선발된 TA에게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교육실행비, 연구공간과 기자재, 교보재 등을 지원한다.

'지역예술교육TA'는 공적 돌봄기관인 거점형 키움센터 1호점(노원·도봉)과 2호점(동작)에서 돌봄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키움센터TA'와 관악·동작·성동·중구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자치구문화재단TA'로 구분된다. 분야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콜로키움 '나를 만나는 돌봄과 예술교육'과 '2021 지역예술교육TA 공모'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인천시, 박 시장의'찾아가는 현장시장실'강화군민 생활안전 집중 점검

2일 군도8호선 확포장공사 현장·다송천 배수갑문 예정지 점검

2일 인천 강화군을 찾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은 지역민의 생활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강화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강화읍 대산2리 마을회관 인근의 '군도8호선(대산~월곡)'도로 구간의 확·포장공사 예정지였다. 이 도로는 오래된 탓에 폭이 좁고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통행하는 차량이 불편을 겪고, 덩달아 지역민의 안전도 위협받던 구간이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함께 올해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완공 시 차량은 물론 주민의 통행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도로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인근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관계부서에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송해면의 다송천 배수갑문 설치 예정지를 찾았다. 다송천 일대는 비가 많이 왔던 지난해 7월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농경지에 염해피해를 입을 뻔한 바 있다. 당시 긴급 가물막이 공사 등 보강공사를 실시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추가 보강공사와 함께 배수갑문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장마와 홍수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강공사와 배수갑문 설치가 필수"라며 "안전진단과 설계유역 등을 조속히 실시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농사일에 피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오는 15일

설치가 예정된 강화문화회관 내 '예방접종지원센터'를 둘러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또 지난 2019년 10월 화재 피해를 입었다가 재건을 앞둔 '우리마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 관계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의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문제점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사다.

김종남/기자



영등포구, 옐로카드로 지켜주세요!...드림스타트 아동 교통안전교육

비영리법인 '옐로소사이어티'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교통안전 교육

영등포구는 올 6월까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아동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대상 복지사업이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아동 안전권 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법인 '옐로소사이어티'의 교통사고 예방물품 제작과 활동을 지원한다.

옐로소사이어티에서 제작하는 안전용품 '옐로카드'는 아동의 가방에 간편히 매달 수 있는 가로, 세로 60×92mm 크기의 카드모양 키링이다.

옐로카드는 주간에는 햇빛을 반사하고 야간에는 자동차 전조등을 반사해 주-야간 어린이 보행자의 시인성을 증가시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는 거리를 9배 가량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옐로카드 앞면 중간에 '저를 지켜주세요!'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카드는 총 500부 제작되었으며,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 지키기', '눈, 비 올 때 안전한 보행 방법', '자동차의 사각지대 주의하기'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 교육자료도 동봉해 배부한다.

배부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의 가정에 방문해 옐로카드와 교육자료를 전달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개별 교육까지 진행한다.

이 밖에도 구는,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성폭력 예방, ▲자녀양육, ▲아동권리 교육, ▲



영양교육 등 대상자별 생활 환경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옐로카드와 교통안전 교육 자료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지역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주시 '옐로소사이어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타트인 교육환경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실천~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검사(B형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 암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활용 안내

'민원24' (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결과를 접수완료한 것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 대상면허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 : 9세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24세는 다른 국가검진과 중복 불가
검사항목 :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추가검사) 매독혈청반응검사, HIV항체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학교밖 청소년 검진관련 문의 (유선전화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안양시청소년재단, 만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소통 채널 '유쓰토리' 개국

안양시청소년재단 산하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4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청소년 소통 채널 '유쓰토리' 개국 방송을 진행한다.

'유쓰토리'는 청소년 이야기(Youth story) 또는 너의 이야기(You story)라는 의미로 안양시청소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자 새롭게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날 개국방송에서는 만안청소년수련관 및 유쓰토리 소개를 시작으로 맛집 토론, 타로로 보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의 운세, 실시간 시청자 타로 상담 등 청소년들의 흥미를 끄는 방송을 계획하였다.

특히 개국방송 특별 게스트로서 한국타로협회 이사장 및 협회

장을 맡고 있는 이영숙 타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쓰토리 채널 타로, 실시간 시청자 타로 등 운세를 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마련하였다.

유쓰토리 채널은 개국방송 이후로 4월에는 만안청소년수련관 자치조직 청소년들의 콘텐츠를 방영할 예정이며, 방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사전 접수를 받고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인문, 사회, 봉사, 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의 청소년 관련 이야기를 방송할 계획이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박영미 관장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청소년에게 더욱 중요해진 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쓰토리 채널은 매 달 1명의 우수 크리에이터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만안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원준규기자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홍보대사 포코(POKO) 위촉

청소년문화의집 홍보대사 포코(POKO) 위촉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과 ㈜캐릭터라인은 4월 1일 가평군민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권익 보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캐릭터인 포코(POKO)를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하였다.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을 대표할 홍보대사로 위촉된 포코(POKO)는 청소년들과 함께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를 꿈꾸며 청소년의 성장과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경식 관장은 "라비나 별에서 가수가 되기 위해 지구에 온 포코(POKO)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진로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래하는 포코(POKO)를 개발한 ㈜캐릭터라인은 캐릭터 개발 및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홍보하고 사업화하는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부천시, 청년마음 비타민 캠페인 1탄 개최

지친 청년을 위한 SNS 응원 댓글 이벤트 진행

부천시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3주간 청년마음 비타민 캠페인 1탄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업의 단절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부천시민들이 참여하는 청년마음 비타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게시되어 있는 청년정신건강 홍보영상을 시청한다. 그 후 감상평과 '청년들의 ()을 응원합니다.'의 빈칸을 채워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긴다. 이후 캠페인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지인 2명을 태그한다. (작성 예시: '청년들의 미소짓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상평 / @김정진 @이청년)

참여자에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당첨자 명단은 6월 7일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신겸 센터장은 "이번 청년마음 비타민 캠페인을 통해 장기간 코로나로 지친 청년들이 부천시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로 마음의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순희기자



동두천시, 외국인근로자 및 미등록이주민 코로나19 극복 방역 및 생필품 지원 간담회 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배분 사업, ㈜무궁화유지 생필품 협찬

동두천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대상 선제적 코로나19 검사 시행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지난 1일 지역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미등록이주민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대응방안에 대한 연속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두천경찰서, 경기북부이주민센터 관계자, 외국인 교회 목회자, 동두천국제카톨릭공동체, 경기북부지역 난민 활동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및 미등록이주민 집단감염 재발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선제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차례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공적 지원을 하고, 민간자원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고, 은폐생활을 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미등록이주민들을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전국적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두천시는 착한일터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비와 지역 유명 위생업체 ㈜무궁화유지 협찬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과 국경을 넘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는 인도적 차원의 방역물품 및 생

필품 키트를 제작하여, 동두천경찰서 관계 부서와 경기북부지역 외국인 커뮤니티 대표들의 협조를 얻어, 물품지원이 시급한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미등록이주민 위기가구를 조사·선별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즐거움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의 폭넓은 복지정책으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주민과 특정 대상자를 위한 지역맞춤형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고양시 이재준 시장, 주민자치회 전면전환 준비

고양시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2021년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7개동의 신규위촉 위원과 재위촉 위원을 포함한 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 자치를 실천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마을 전체에 이러한 경험이 공유돼 다른 동, 다른 시에 선례가 되도록 좋은 활동 펼쳐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마을 자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과정은 열린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위촉식은 사전 실내소독, 발열체크, 손 소독,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한영기기자



이재명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경기 동남권 GTX 유치 적극 협력할 것”

의왕시, 의왕바라산자연휴양림 5일

이재명 지사, 1일 ‘GTX 광주·이천·여주 유치’ 공동 건의문 접수

부터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후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신동헌 광주시장으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주·이천·여주 유치 건의문을 전달받고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경기 동남부권 3개 지자체장은 여주역 광장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건의문 공동서명식’을 갖고 경기도청으로 이동해 이재명 지사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3개 지자체는 건의문을 통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GTX-A 노선인 수서~광주선에 이어 광주~이천~여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GTX-D 노선인 김포~하남에 이어 광주~이천~여주까지 연결하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광주·이천·여주로의 GTX 연결은 수도권 내 불균형 불공정을 해소하고 그간 중점규제로 오

래도록 참아 온 70만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유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 동부권역이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점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인 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등 생활권 영역확대를 통해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출퇴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A노선은 2018년 12월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며, D노선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 지사는 올해 1월 ‘2021년 도정 업무 보고회’에서 “공동체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이미 발전된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유도하는 것도 균형발전과 공정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수기자

의왕도시공사는 ‘바라산휴양림 비대면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오는 4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탬프 투어는 휴양림 체크인데스크에 비치된 스탬프 지도를 소지하고 바라산 등산로 6곳에 설치된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미션이 완료되는 방식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탬프 투어 이용객은 음이온 폭포를 시작으로 생태습지원, 피톤치드 숲, 낙엽송을 지나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바라산의 향취와 다양한 생태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음이온 폭포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은 공기정화 작용,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적이며 계곡의 흐르는 물로 조성된 습지대인 생태습지원에서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1급수에 사는 양서류도 만나볼 수 있다.

바라산휴양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출 및 모임 자제 등으로 지친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휴양림을 탐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종균기자



경기도 농수산물진흥원, 마켓경기 1주년 맞아 '5대 꿀 캠페인', '생일 할인전' 열어

여주시, 여주도자기 우수성 홍보를 위한 세라믹 페어 개최

4월 12일까지 '생일 할인전'에서는 인기 경기 농수산물 289가지 30~3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여주 세라믹 페어 판매업체·전시작품 모집

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이 도 농식품 온라인몰 '마켓경기' 1주년을 맞아 도내 농어촌의 신선하고 다양한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5대 꿀 캠페인'과 '생일 할인전'을 연다.

'5대 꿀 캠페인'은 ▲시크릿 딜 ▲쇼호스트 오디션 TOP7 ▲남 몰래 산다, 미스터리 쇼퍼단 모집 ▲구해줘 지구, 바퀴쥐 식탁 캠페인 ▲경기 쌀세권, 경기미 구독 앱 출시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시크릿 딜'은 마켓경기 이용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가 할인 행사다. 마켓경기에서 찜하기와 소식 받기를 눌러준 회원은 이번 달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알림을 통해 50% 할인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히든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쇼호스트 오디션 TOP7'은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도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켓경기 라이브커머스'에서 활약할 쇼호스트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은 이번 달부터 연 매출 5억 미만의 강소농 우수상품 30개 이상을 '라이브커머스'로 소개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는 실

시간 방송을 통해 농수산물 신선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채팅으로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어 소비자 참여도가 높다.

세 번째 '남 몰래 산다, 미스터리 쇼퍼단 모집'에서는 1,000명의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가 상품, 배송, 서비스 만족도를 소비자의 시선에서 평가한다. 비공개로 평가된 내용은 연 2회 이상 입점 업체에게 공유돼 소비자 구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네 번째 '구해줘 지구, 바퀴쥐 식탁 캠페인'은 기후 위기를 맞아 불필요한 포장과 일회용품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마켓경기 입점 업체에게는 저탄소 재배 농법을 유도하고, 율하반기부터는 도 대표 친환경 상품인 G마크 농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추천을 통해 친환경 에코백(echo bag)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 '경기쌀세권, 경기미 구독 앱 출시'는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농산물 직거래 정기배송 전용 앱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앱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한 번의 주문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경기미를 매일 지정된

날짜에 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고 생산농가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제작해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마켓경기 1주년 생일 할인전'은 4월 12일까지 진행된다. 한우, 경기미, 과일, 김치, 건강식품 등 마켓경기 인기 상품 289가지를 30~36% 할인가로 판매한다. 2만 원 이하 알뜰 실속 상품, 2만~5만 원대 가성비 좋은 상품, 5만 원 이상 고품질 상품 등 종류도 다양하다. 마켓경기 찜을 하면(기존 찜 회원 포함) 1,000원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도 마련돼 있다.

단, 농가 지원 예산이 소진돼 할인이 조기 종료되면 기간 중 정상가로 판매될 수 있으며, 업체에 따라 배송비는 별도 부과될 수 있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장은 “지난 1년 간 마켓경기 소비자들은 ‘착한소비’라는 새로운 상생 구매 흐름을 만들어 주셨다.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가의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제33회 여주도자기축제의 정상적인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해 판로 개척이 어려운 도예인들을 위한 '여주 세라믹 페어'를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여주 세라믹 페어는 여주도자기 판매업체 60개와 전시작품 25점 그리고 포토존을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일원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포토존에서는 소규모의 공연도 진행해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여주 세라믹 페어에 참가할 판매업체와 전시작품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소재 도자기 관련 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4월 14일 ~ 15일 2일간 17시까지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

다. 단, 판매부스는 1업체에 1부스만 신청 가능하고 전시작품도 1업체당 1점으로 제한된다.

판매업체는 공개추첨 방식을 통해 판매부스 위치를 선정하고, 전시는 출품작의 가격만 표기해 진행하는 블라인드 심사로 출품작을 선별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는 여주세종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장소를 제공해준 여주프리미엄아울렛과 어려운 결정을 해준 여주도자기 사업협동조합 그리고 도예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예산업에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취소된 여주도자기축제를 대신해 여주도자기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전문 쇼핑몰인 “여주물”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이성윤기자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경북도, 아열대과수 연구회 첫 결성...재배기술 공유한다.

경북농업기술원, 아열대 작목 재배농가 기술 교류 및 고충 해결에 나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3월 31일 경주, 고령 등 경북도내 아열대 재배농가 60여 곳이 참여해 '경상북도 아열대과수 연구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성된 '경상북도 아열대과수 연구회'는 시군별로 산재해 있는 아열대 재배 농가들을 연결하고 경북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작목 재배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재배농가간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세미나 개최 및 선진지 견학으로 재배기술을 향상시키고 시장 교섭력과 통합브랜드 육성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저감 노력이 현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2080년 무렵에는 남한지역 60% 이상이 아열대기후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른 신소득 작목으로 아열대 재배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기 위해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2016년부터 '아열대작목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재배농가를 육성하고 경북지역에 적합한 재배매뉴얼 개발에 힘써왔다.

현재 경북지역 아열대 작목 재배 현황은 171농가, 37.5ha이다.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고 시장성이 있는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와 애플망고 등의 경북지역 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상북도 아열대과수 연구회는 재배 현장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재배기술 보급에 동반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밀양시, 영예의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

밀양농협, 생산자단체 부문 오십만불 수출탑 수상

밀양시는 '제25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에서 밀양농협 공관장지점이 생산자단체 부문 오십만불 수출탑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은 관내 우수 농수산물을 수출해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상으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 단위 행사가 아닌 시에서 전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전년도 코로나19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에 전념해 수출탑을 수상한 업체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양농협은 전년도에 밀양의 주력 농산물인 딸기 719천불을 홍콩으로 수출해 오십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뒀다. 이성수 대표는 "밀양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정을 쏟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밀양시의 2020년도 전체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383억원으로, 신선농산물 41억, 가공식품 342억원이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국가, 품목, 물량, 수출금액 전 분야에서 크게 달성했으며, 2019년 대비 신선농산물 2종, 가공식품 1종이 증가

해 3개 품목이 확대됐다.

시는 딸기, 단감, 사과, 감말랭이, 조피, 건대추 등 수출 전략품목 6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존 수출업체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신규 수출업체를 육성해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가공업체, 유통망 확보를 연계하는 밀양형 6차산업을 추진해 신선농산물 생산 농가와 가공식품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출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 진행과 상담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올해는 온라인 수출 상담회, 온라인물 연계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일호 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밀양 농산물 수출을 위해 노력해 수출탑을 수상한 밀양농협 공관장지점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출 정책을 농가 현실에 맞게 정비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행정과 농업인 및 가공업체 그리고 수출 관계 업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경영기자



울진군 2개 부문 국가브랜드대상 수상

5년 연속 울진대게, 4년 연속 울진금강송 송이



울진군은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2개 부문 대상을 품에 안았다. 울진대게는 5년 연속, 울진금강송 송이는 4년 연속 수상이다.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 지역·문화·산업 분야의 우수한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되었다.

올해 5회 연속 수상한 '울진대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게축제 취소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울진군, 수협, 어민, 생산·유통단체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 판촉행사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도모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연안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여 위관람 제한, TAC제도와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생분해성 어망보급' 전국 최초 시범사업 실시 등 울진대게 자원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정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4년 연속으로 수상한 '울진금강송 송이'는 청정동해바다의 깨끗한 공기속에서 울진금강소나무 아래 생육하여 타 지역에 비해 표피가 두껍고 단단해 저장성이 매우 강하고 특유의 송이 향이 진해, 송이버섯 중에는 으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울진송이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울진군은 1991년부터 5,504ha에 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송이가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울진금강송 송이축제'를 통한 꾸준한 홍보로 이번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대게와 울진금강송 송이를 울진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남해군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선정 쾌거

총 사업비 20억 확보...강진만에 양식단지 조성

남해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개체굴 양식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2일 밝혔다.

남해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국비 10억 원 포함 총 20억원(국비 10, 지방비 6, 자부담 4)의 예산을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남해군의 기존 굴 수하식 양식 규모는 총 26건, 144.1ha이다.

장기간 수하식 양식으로 인해 어장 환경이 악화돼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수하식 양식에서 개체굴 채종양 양식으로 전환 중에 있다.

다발 형태로 생산되는 수하식 굴과는 달리, 개체굴은 하나 하나씩 키워내는 게 특징인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1차 시범양식 결과 남해군 강진만 해역에서 생산된 개체굴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10여가(26ha)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개체굴 배양장 조성 및 개체굴 공동자율화 작업대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면, 향후 2년 내 연간 3780톤 생산이 예상된다. 생산 유발효과는 1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은 이를 통해 내수확대와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와 귀어자

유입 등 양식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개체굴 양식은 굴 폐각 탈락이 없어 어장 환경 개선에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남해군 강진만에서 개체굴을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개체굴 양식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수 확대와 수출 증대로 어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영훈기자

영주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4월 5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총 37명 모집

경북 영주시는 5일부터 15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을 37명 모집한다.

'경제총조사'는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5년마다 진행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서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조사요원은 업무별로 총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총관리자 1명, 현장조사 지도와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6명,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 28명, 조사지원담당자 2명으로 총 37명을 모집한다.

지원기준은 만18세 이상으로 조사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 관련 통계조사 경험자, 다자녀 가구,

장애인·저소득층 등은 선발시 우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영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미래전략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3일 이후 개별 통보 및 영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익인 미래전략실장은 "이번 경제총조사는 대규모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를 이끌어 낼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제총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기현기자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친화를 위한 3대 캠프 실시

고성군은 고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4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조부모, 부모, 손자녀로 구성된 3대 가족이 참석 가능한 8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이 솔솔~ 3대 캠프'를 실시한다.

캠프는 3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통해 세대 간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 하일면에 위치한 동화어촌체험마을의 갯벌체험을 시작으로 오전포레 클럽빌딩에서 3대가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미션활동 및 다양한 가족 단위 체험으로 다른 참여자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지역센터 바로가기에서 경상남도 고성군센터를 선택하여 프로그램 안내에 접수하면 된다.

최혜숙 센터장은 "봄을 맞아 3대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며 평소 가족 간 보여주지 못한 마음을 표현하는 추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3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며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함양군, 올해 문화재 2건 지정 함양문화위상높여

‘미륵원’명 청동북 보물 제2019호·전통한지 이상옥 장인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46호



함양군은 올해 1월 “미륵원”명 청동북(보물 제2109호)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4월 1일 함양 전통한지 이상옥 장인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보유자로 지정고시되

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보물로 지정된 “미륵원”명 청동북(‘彌勒院’銘 金鼓)은 고려시대 금고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뛰어난 작품으로 보물 제

1604호 영전 은혜사 금고(조선시대 1646년)보다 455년 앞서 제작된 것으로 제작년대, 제작의 중심 인물, 제작 계기를 알 수 있는 비교적 큰 크기와 뛰어난 조형성, 우수한 주조기법 등을 가지고 있는 고려시대 청동북의 제작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함양군은 2018년 최초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6월 보물지정 신청 관련 현지조사와 2020년 10월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 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마천면에 소재한 등구사에 소장하고 있다.

함양군은 2018년 최초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6월 보물지정 신청 관련 현지조사와 2020년 10월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 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마천면에 소재한 등구사에 소장하고 있다.

이상옥 장인은 경남 함양군 마천

면 창월마을에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통한지 제조기술인 흘림뜨기(외발지, 음양지)로 전통한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1만평의 재배지에 약 7만 그루의 단나무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한지장인이다.

지난 3월 22일 개최된 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한지장”으로 전통한지 제조기술 뿐 아니라 원료인 단나무, 황죽규 재배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전승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의령군 신천세씨와 함께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함양군 내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문화재로 추가 지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 기자

봉화군,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

봉화군은 2021년 민방위 교육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들은 1~4년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1시간 등의 교육을 받았으나, 올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 1시간으로 대체한다.

사이버교육 상반기 본 교육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하반기 보충교육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자는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후 접속하거나 봉화군청 홈페이지 민방위사이버교육안내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도 있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이해와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와 재난대비행동요령 등으로 진행되며, 약 1시간 동안의 강의를 수강한 후 소정의 평가를 거치면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들

의 개인 방역수칙 준수절차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협조가 필요하며, 비대면 사이버 민방위 교육에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한반식 기자

민방위사이버 교육 안내

2021년도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군·구별 1시간으로 실시됩니다. (1시간 및 2시간 이상 실시 예정)

교육대상: 봉화군 소속 모든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교육기간: 2021. 04. 01 (목)부터 06. 30 (수)까지

교육시간: 1시간 ※24시간 접속가능

PC + 스마트폰 교육진행방법

STEP 1: 사이버 교육안내 민방위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접속

STEP 2: 본인인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STEP 3: 교육수강 (교육수강 신청, 교육수강)

STEP 4: 이수완료 (평가 200점을 달성하면)

1566-8448 (평일 09:00~18:00, 주말/휴일 09:00~18:00)

NAVER 지식iN 민방위사이버교육

영양 일월산 산나물 본격 출하, 도시민에 인기 최고!

영양군은 2일 일월산 산나물을 본격적으로 출하한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산나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여러 조건을 지니고 있다.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양군의 전체 814.7㎢ 중 87%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토양은 산나물이 서식하기 좋은 갈색삼림토로 산나물과 희귀 약초들이 많이 자란다.

그 중 단연 최고라 불리는 어수리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다하여 '어수리'라 이름 붙여졌을 정도로 귀하게 취급받아 온 최고급 산채이다. 어수리 특유의 맛과 향으로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서 더욱 진가를 드러냈다. 현재 영양군 관내 30농가 4만 1,752㎡에서 23t의 어수리를 재배할 정도로 관내 재배량이 급증하고 있다.



김세기기자

어수리는 뛰어난 맛과 함께 각종 무기질과 섬유질, 비타민이 풍부해 당뇨·변비·소화 등에 탁월한 효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동의보감에는 피를 맑게 해준다고 기록돼 있는 등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자리잡았다. 어수리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월등히 많고 수익이 높아 영양군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 산나물의 우수한 품질만큼이나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건강한 산나물을 도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기회를 마련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온라인 판매, 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새로운 판로 확대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정구, 부산대학로 빚거리 4월까지 연장한다



부산 금정구는 ‘부산대학로 빚거리’를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부산대학로 빚거리’는 당초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운영 연장 요청을 고려해 구는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방역기기를 운용을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대학로 상인회 이광호 회장은 “‘빚거리’ 점등으로 인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가 생기고 상인들과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빚거리 운영 기간 연장 결정을 환영했다.

부산대학로 빚거리 조성 사업은

부산대학로 상인회에서 제안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국도교통부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11월 조성을 마쳤다.

“다시 젊음”이라는 주제로 젊음의 화사함과 발랄함이 담긴 젊음의 거리, 중장년층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거리,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기는 즐거움의 거리 등 3가지 주제로 LED 빛 조형물, 미디어아트, 포토존 등이 설치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점등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지역 상인들과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작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경남도, 안전한 야영장 조성해 캠핑 산업 활성화 이끈다

경상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 공모에 13개 시·군 야영장 26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포함 총사업비 5억7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18개 시군에 260여 개의 다양한 유형의 야영장이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관광지 선호 등 관광 유행의 변화에 따라 경남의 야영장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안전한 야영장 환경 구축과 야영장 내 다양한 관광매력 제공을 통해 건전한 캠핑문화의 확산 및 캠핑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화재안전 시설 지원/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등 총 2개 분야로 추진된다.

경남도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11개 시·군(창원, 통영, 김해, 밀양, 양산,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야영장 13개소가 선정되었고,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화재안전 시설 지원/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에 8개 시·군(김해, 밀양, 창녕, 고성, 하동, 산청, 함양, 함천) 야영장 13개소가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에 3억7천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화재안전 시설 지원/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에 2억 원으로 총 5억7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영식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와 변화하는 관광 유행에 따라 캠핑장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안전한 야영장 환경 구축으로 캠핑 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출입자 명부작성 및 발열확인 등 물품 시·군과 합동점검도 지속할 계획이며, 안전한 경남관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봉암도전석탑, 고추말리기, 반딧불이천문대, 은행나무, 시서지

의회

전민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의회

전북교육청, 고1·2담임교사 진학지도 역량강화

2일, 전북교육문화회관.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전라북도교육청이 고1,2 담임교사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2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학년별 각 1명, 학교당 최대2명) 198명을 대상으로 ‘꿈을 키워주는 로드맵, 맞춤형 진학지도’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2022년 이후 대입제도 및 전형 변화에 따라 고등학교 1,2학년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

화하고, 수능 전형 확대 등 변화하는 대입제도와 진학지도 방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전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진학지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는 변화된 진학지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2022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 변화와 진학지도 방안 ▲고1,2학년 담임교사를 위한 학생부 기록의 작성과 평가 ▲기타 토의 등

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22학년도 이후의 대입 제도 및 전형의 변화에 따른 진학지도 방안 안내를 통해 도내 고등학교의 진학 계획 수립과 교원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꿈을 키워주는 맞춤형 고1,2 진로진학지도 로드맵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담임교사 진학 지도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부안군-공무직노조 부안군지부, 2021년도제1차노사협의회개최

부안군은 지난 1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말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 지부장 등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부안군청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6개 안건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등 군정발전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백신접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공직자의 적극적

인 헌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많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통된 목표를 노사가 공유하기를 희망한다"며 "군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 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말순 지부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줘서 감사하다"며 "부안군청 소속 근로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부안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남원일반산업단지에 27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아시아, (유)경원소프트기계, (유)발리코퍼레이션, (유)수엔지니어링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남원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식이 2021년 4월 1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2009년 완주과학산업단지에서 ㈜아시아엔테크로 창업하여 2014년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로 확장·이전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는 울타리용 메쉬펜스 제작을 주업종으로 하여 각종 철망 및 디자인펜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울타리 펜스 거래처 및 대리점과 조달청을 통하여 납품하고 있다. ㈜아시아는 오랜 기간 동종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및 분체도장 시설에 대한 차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신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국내 최대의 메쉬펜스 제작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급변 남원일반산업단지 투자를 결정한 ㈜아시아는

단지 내 부지 33,000㎡, 건물연면적 11,550㎡, 투자금액 108억원, 신규고용 42명 고용의 투자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경원소프트기계, (유)발리코퍼레이션, (유)수엔지니어링 등 3개 기업은 제품 생산 공정 상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 및 설치, 특장차 차체 및 트레일러, 자동차 차체용 크레인용 제조하는 기업으로 남원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하였다. 각 기업별로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3개 회사 모두 단지 내 임대부지에 들어서게 되며, (유)경원소프트기계는 부지 30,994㎡에 건축연면적 9,918㎡, 투자금액 76억원, 고용인원 41명이고, (유)발리코퍼레이션은 부지 9,003㎡, 건축연면적 5,951㎡, 투자금액 43억원, 고용인원 34명이며, 마지막으로 (유)수엔지니어링은 부지 15,517㎡, 건축연면적 5,290㎡, 투자금액 45억원, 고용인원 34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남출/기자

저렴한 지가와 편리한 교통망으로 수송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남원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유)경원소프트기계 등 3개 기업은 지속적인 주문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생산시설 투자가 시급하여 조기에 공장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기 투자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전라북도 및 남원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였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각 기업이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작지 않은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만큼, 남원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각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으며, 전라북도에서 투자협약에 참석한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각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고 원활한 기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총 272억원, 151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투자로 남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남출/기자



완주군, 소상공인·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완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을 실시한다. 2일 완주군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할 당해 임대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될 건축물본 재산세를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30~50%를 감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여행·관광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이와 관련된 영업용 승용(일합포함) 차량, 렌터카·전세버스·일반버스 등에 소득이 감소된 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완주군은 이같은 감면내용을 지난

3월26일에 완주군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전체 납세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의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폭넓게 운영해 납부부담을 완화한다. 관내 입주한 업체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감면과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팩스, 이메일,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사치성 건축물은 제외되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

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원광대,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기증한 수목 식수행사 가져

학군교 내 '원광대 수목존' 현판식 갖고, 은행나무 등 30그루 식수

원광대학교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은행나무 등 30그루의 수목을 기증하고, 박맹수 총장과 소장 정재학 학군교장을 비롯해 ROTC 동문회, 학군교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일 식수행사를 진행했다. 수목 기증은 학군교에서 진행되는 조경관리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ROTC 후보생들의 입영 훈련 시 애교심 고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증된 수목은 학군교를 출입할 때 반드시 경유하는 역사관 주변에 원광대 기증 수목임을 표시하는 '원광대 수목존'을 조성해 심어졌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수와 함께 원광대 수목존 소개에 이어 '원광대 수목존 현판식'이 진행됐다. 인사말을 통해 박맹수 총장은 "원광대가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학군교에 수목을 기증하게 돼 기쁘다"며 "ROTC 후보생들이 향후 아름다운 학군교 교정을 보면서 애교심과 애국심이 고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재학 학군교장은 "학군교

에서 계획한 조경 사업에 원광대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예장교 육성의 학군교가 아름다운 교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학군교에서는 학교 이전 후 심은 수목의 고사가 증가하고, 성장이 둔화되자 과산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과 연계한 식목 추진과 더불어 학군단 설치대학의 교목 및 교화 식수거리 조성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번 기념식수에 앞서 원광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학군 단 설치대학 중 최초로 학군교에 교목인 은행나무와 교화인 백목련을 기증했다. 한편, ROTC 동문회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원광대 학군단은 대학본부와 동문회 및 구성원의 노력에 힘입어 2019년과 2020년 국방부 주관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 최우수,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종합우수 학군단에 선정되는 등 매년 뛰어난 성과를 내 명문



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시민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음주 운전자 검거·실종아동 발견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순천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달 30일 새벽, 지역의 한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 운전을 하는 현장을 관제하고 경찰과 공조해 음주 운전자를 조기에 검거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또 지난달 25일 아침에는 지역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발생한 등굣길 아동 실종 사건을 경찰과 공조해 면밀하고 신속한 CCTV 집중 모니터링으로 실종 아동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가출인 발견, 20일에는 차매노인 발견 등 올해 들어 중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크고 작은 관제 실적이 1,865건에 달한다. 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중요 범인검거에 기여해 순천경찰서로부터 2021년 3월까지 4회, 2020년 8회 감사장을 받은 바 있으며 전남경찰청 주관 2017년 상반기 베스트 관제센터에 선정되기도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안전 최전선을 수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속적인



실시간 CCTV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재난 등을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

하게 지키는 첨병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전남도, 443억 들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목포 등 14개 시군 4천 719개소에 태양광 등 설치... 에너지 비용 절감

전라남도는 14개 시군 4천 719개소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별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건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2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융·복합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참여자에게

국비와 지방비 최대 85%가 지원돼 선호도가 높다.

국비 222억 원을 포함해 총 443억 원을 들여 목포, 여수, 나주 등의 주택 및 상가 등 총 4천 719개소에 태양광 1만 8천 725kW, 태양열 4천 863㎡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주택에 3kW 규모 태양광·태양열 설비가 설치되면, 월간 전력사용량이 350kWh정도 절감되고, 연간 65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도록 2022년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이용섭시장, 볼프강양거홀처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접견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 상호 협력 논의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전국 농촌 모델 만든다

농촌공동체 혁신파크 내년 준공, 농촌활력 기반 사업 적극 추진

해남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지역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은 2020년부터 4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에코푸드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에코 해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농업 확산 시스템 구축과 유기식품 성장기반 확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해남형 청년농업 협동농장, 공동체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게 된다.

농촌공동체 혁신파크는 폐교된 황산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하게 되며 귀농인 지원과 푸드 마케팅, 농산물 가공 공장 등이 위치한 거점 공간으로 마련된다.

19만 8,000㎡ 규모의 농촌공동체 혁신파크에는 유기가공 공장, 온라인 미디어 창작실, 생태농업 교육장, 농촌공동체 조직 입주 공간, 다목적 행사마당 등이 공유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유기먹거리 가공 공방은 농가의 생산품을 습·건식, 밀키트, HMR 등 2,3차로 가공하는 시설을 마련, 수요가 늘고 있는 유기식품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체 전문 교육을 비롯해



에비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지속형 생태농업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체 혁신파크는 내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황산고에는 신활력사업 센터가 개소, 운영되고 있다.

청년농업 협업농장은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협업농장을 조성, 청년들이 체류하면서 유기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품목군에 대한 농업기술을 습득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해남형 사회적 농업의 거점 농장으로 협업농장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하는 치유농장, 사회적 농업 아카데미를 통한 주민 참여형 활동가 양성 교육 등도 진행한다.

군은 생태농업을 기반으로 한 유기가공식품 생산의 '가치 농업'과 특

색 있는 먹거리 가치 자원을 통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같이 농업'의 비전을 세우고 해남군 사례가 전국 농촌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명현관 해남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센터에 방문,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방향과 방안에 대해 추진단과 의견을 공유했다.

명현관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해남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생태농업 활성화와 지역 순환 경제 구축, 공동체 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영윤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목포에서 도민과의 대화

6일 오후 2시30분부터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유튜브 생중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목포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목포를 방문한다.

김 지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김중식 목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도정보고 건의사항,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대화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행사장을 2회에 걸쳐 소독하고 행사장 입장 시 체온 측정, 손소독,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실시된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여자를 최소화하고 미리 신청을 받아 선정된 온라인 참여자 중심으로 진

행하며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온라인 참여자는 각자의 장소에서 휴대폰, 노트북, PC 등을 통해 영상 대화 프로그램인 'ZOOM'에 접속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정적인 영상 송출을 위해 온라인 참여자는 15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합 행사가 어려운 만큼 적정 규모의 현장 대화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대화를 동시에 실시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볼프강 양거홀처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내외를 접견하고 광주와 오스트리아 간의 문화, 인권 등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대사 내외의 광주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엔날레에 오스트리아 작가가 참여해 의미가 있듯이 광주와 오스트리아의 도시들 사이에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가 조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음 행선지로 소록도를 방문하시는데,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 두분의 평생에 걸친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볼프강 양거홀처 대사는 "어제 비엔날레와 5.18민주묘지를 둘러봤는데, 광주는 5.18의 안타까운 비극을 비엔날레의 창조적이고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승화했다고 느껴졌다"며 "차기 열린 비엔날레에는 오스트리아의 문화 예술을 더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저희 내외에게 소록도 방문은 아주 중요하다"며 "소록도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 오스트리아에 계신 수녀님들께 고향 같은 소록도가 잘 있다고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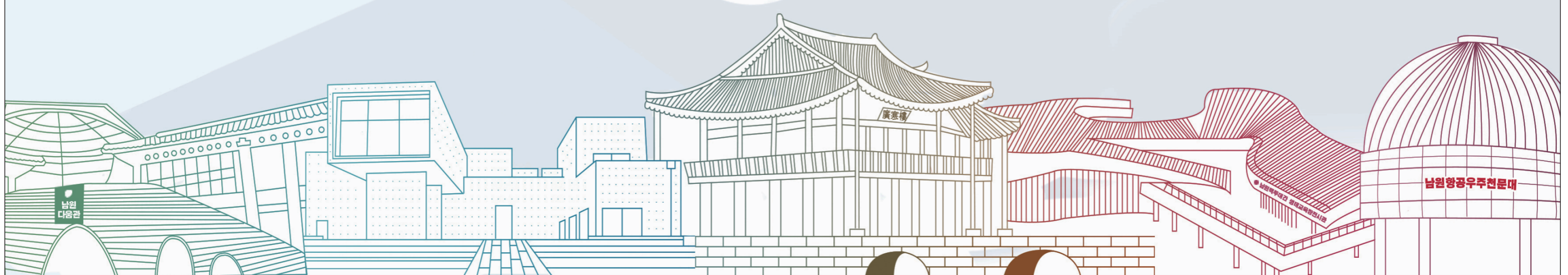
이 시장은 "미얀마 국민에 대한 학살과 인권유린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세계인들에게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볼프강 양거홀처 대사는 "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시장님께서 미얀마와의 연대 메시지를 언급하신 것을 인상 깊게 들었다"며 "서울에 돌아가면 본국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덕윤기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춘천시 소양강스카이워크 '오픈'...기념품 판매장도 운영

소양강 스카이 워크 시설유지관리 공사 마무리... 4월 3일 개장

새롭게 단장한 소양강스카이워크가 문을 연다. 춘천시정부는 4월 3일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소양강스카이워크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정부는 소양강스카이워크의 하루 조망 개선을 위한 유리필름 교체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정비 공사 등을 진행했다. 봄철 날들이 시즌을 앞두고 예정대로 공사를 끝마쳐 춘천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양강스카이워크를 마음

껏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장에 맞춰 기념품 판매장도 운영된다. 기념품 판매장 '설레임, 春川'은 기존 소양강스카이워크 매점 카페를 리모델링했으며, 지역 핸드메이드 작가 업체 38개소가 입점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춘천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제작, 판매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창출과 춘천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은/기자**

이철호 관광과장은 "봄을 맞아 춘천을 찾는 관광객이 소양강스카이워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에 따르면 소양강스카이 워크 연도별 방문객은 2016년 53만9,138명, 2017년 71만3,333명, 2018년 59만1,664명, 2019년 64만5,862명, 2020년 21만4,718명이다. **최재은/기자**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주민 역량강화 교육 시행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흘간 태백시 혁신센터에서 태백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매일 3시간씩 3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시간은 일자별로 차이가 있다. 교육대상은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태

백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회차별 15명의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상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이다"라며,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사업 참여까지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본격 출범

4.2.자 위원임명 및 기념행사, 제1차 자치경찰위원회의 개최

강원도는 4.2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기념하는 첫 행사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로는, 먼저, 도지사가 위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자치분권위원장이 함께하는 가운데 위원들과의 상견례 자리를 갖고 간담을 나눌 예정이며, 이후에는 위원회 청사로 이동하여, 초청내빈들과 함께 현판을 제막하고 청사를 둘러본 후, 도 청사 분관 앞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식수를 함으로써 행사를 마칠 계획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 임명장 수여와 동시에 공식적인 임기('21.4.2.~'24.4.1.)를 시작하게 되며, 송승철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자치경찰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활

동에 들어가게 된다. 사무국 운영을 총괄할 상임위원(사무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선정 후 당일 임명할 예정이며, 위원장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임용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6월까지 운영되는 시범기간 중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의 예산수립 및 경찰공무원 인사 등 법정사무 처리를 위한 기능을 정립하고, 위원회 운영체제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며, 지역경찰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등 경찰공무원 복지 지원 사업과 지방-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치안서비스 확대 등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전면시행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0년간 논의만 무성했던 자치경찰제 시행됨으로써 이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며, "우리가 앞서 시작한 자치경찰제가,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평창군 휘닉스빌유스호텔,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시설'로 선정

평창군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관내 소재 수련시설인 휘닉스빌유스호텔이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야영장)을 대상으로 수련시설 운영·관리체계,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조직·인력 운영 현황과 안전·위생점검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서면·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한편 휘닉스중앙에서 운영하는

휘닉스빌유스호텔은 2002년에 봉평면 무이리에 설치된 숙박정원 736명의 대규모 시설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었으며, 특히 청소년학과 교수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기에 보다 의미 있는 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김복재 가족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모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유익하고 특색 있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양양군,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예산절감 효과 기대

양양군이 전산화 시스템을 통한 우편물 관리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해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한다. 본 시스템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테스트 과정을 통해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우편모아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화해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우편물 수·발신 업무를 전산화하고, 우체국과 연계해 접수 및 배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

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은 우편물 접수·발송·환부 등 모든 과정이 전산 처리되어 우편물 처리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 정산 및 수취인 확인 등 사후관리도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우편물 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등기 우편물 발송 시, '환부불필요'를 선택하여 필요 없는 반송(등기환부료 : 건별 2,100원)을 방지하여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서성철 자치행정과장은 "그동안 우편물 증가에 따라 발생한 우편 업무가중을 이번 전산화를 통해 해소하고, 또한 불필요한 반송을 미연에 방지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2020년에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등 약 54백만 원의 우편요금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등기환부부는 6백만 원 수준으로 우편요금의 11%를 차지했다. **정동희/기자**

강원도교육청 삼척교육문화관,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심포 하나, 도서관'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제57회 도서관주간 운영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심포 하나, 도서관

제57회 도서관주간 행사 안내

4. 12.~4. 18.

- 랜선 사진전**
 - 유무기간: 4. 1.(목)~4. 13.(화)
 - 대상: 삼척교육문화관 이용자
 - 내용: 책 읽는 모습을 찍은 사진에 책 속 한 줄을 담아 응모
 - 시상인원: 8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5)
 - 수상작 전시: 4. 17.(토)~4. 22.(목)
- 스마트한 365 도서관생활**
 - 기간: 4. 13.(화)~4. 18.(일)
 - 대상: 스마트도서관 대용자(중학생 이상)
 - 내용: 책을 빌리면 한국문학 작품의 구절이 담긴 독서용품 제공
 - 수량: 60개
 - *1인 1회 증정, 당일 반납시 제외
- 미션! 북파서블**
 - 기간: 4. 13.(화)~소진시까지
 - 대상: 어린이 이용자
 - 장소: 어린이자료실
 - 내용: 미션책 3권 자가대출키로 빌리기, 주제별 도서전시 참여를 완성하여 100%를 채우는 선물을 제공
 - 수량: 100개
 - *1인 1회만 미션활동 가능, 선착순 증정
- 정진호 작가와의 만남**
 - 일시: 4. 15.(목) 15:30~17:00
 - 장소: 문화교실 7(별관)
 - 대상: 초등학생 3~4학년 20명
 - 주제: 다양한 모습을 보기, 위를 봐요!
 - 내용: 작가가 들려주는 그림책과 (위를 봐요!) 놀이
 - 접수기간: 4. 6.(화)~4. 13.(화)
 - 접수방법: 어린이자료실 방문 및 전화접수(570-5534)
- 정기간행물 무료 나눔**
 - 기간: 4. 15.(목) 10:00~4. 17.(토)
 - 장소: 본관 1층 로비
 - 내용: 2020년 1~6월 구입 정기간행물 무료배부(1인당 3권 이내)
 - 수량: 57종 399부
- 대출정지 해제, 두 배로 대출 주간**
 - 기간: 4. 13.(화)~4. 18.(일)
 - 장소: 종합, 어린이자료실
 - 내용: 30일 미만의 연체된 자료 반납 시 대출정지 해제, 도서 대출권수 10권으로 확대

문의: 문화정보과 570-5522 **이동원/기자**

강원도교육청 삼척교육문화관은 1일부터 22일까지,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57회 도서관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심포 하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책 읽는 모습과 책 속 한 줄을 응모하는 랜선 사진전, △스마트한 365 도서관 생활, △미션! 북파서블, △대출정지 해제, 두 배로 대출 주간, △정진호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랜선 사진전은 13일까지 책 읽는 사진과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응모할 수 있으며, 15일(목)에 진행되는 정진호 작가와의 만남은 6일부터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방문 및 전화접수 할 수 있다. 삼척교육문화관 관계자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독서 행사를 통해 작은 위로가 되고 새로운 활력과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동해해경, 바다환경 지킴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모집

해양경찰청 주관, 해양오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와 협력 추진

동해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양오염 사각지대 해소 및 깨끗한 바다 만들기 위한 평소 해양환경에 관심과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활한 관할구역 대비 정부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모집 대상으로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해양환경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주요업무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 오염물질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해안가 지역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해양환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등이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5월 중 안전한 활동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해경관계자는 "시민사회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평창군 코로나19 접종센터' 모의훈련 현장방문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4월 2일, 평창군 코로나19 접종센터 모의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찰 등 접종시행 전 과정에 걸친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센터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관계자 및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평창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시작을 대비하여 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평창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4월말 개소를 목표로 초저온 냉동고 등 제반 시설설치를 완료 하

였고, 4.1.(월)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이다. 오늘 모의훈련을 통해 개소에 대한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고, 4월 말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접종센터를 본격 가동하게 된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4월 1일부터 4개 센터(춘천, 원

주, 강릉, 삼척)에서 75세 이상 어르신(172천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 되었고, 4월 중 그 외 14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4월은 어르신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접종기관과 의료인력,



백신의 배송과 보관, 관련 지침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여,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

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동원/기자**

괴산군, 2021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친환경유기농업도시 부문 대상 수상

9년 연속 친환경유기농업도시 부문 최고 입증



충북 괴산군이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 9년 연속 친환경유기농업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앙일보 미디어그룹과 뉴욕페스티벌이 주최하는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가 이미지의 핵심적인 구성요인인 문화·산업·지역부문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소비자 직접투표와 공정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고의 국내 브랜드로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괴산군은 이 상에서 9년 연속 친환경유기농업도시 부문 브랜드로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군은 유기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유기농산업 시장을 선점해 유기농업의 메카로 발전하고자 2012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군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아시아지방정부유기농협의회(ALGOA)와 세계유기농협의회(GAOD)를 창

립하는 등 국제 유기농교류의 중심으로 유기농의 공적 가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경영관리제를 시행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유기농산업을 집중 육성한 점과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게 된 점 등이 높이 평가 받았다.

군은 내년에 괴산에서 다시 한 번 개최되는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 '유기농=괴산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국내 유기농산업 육성의 도화선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확정에 이어 9년 연속 최고의 유기농업도시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를 넘어 전세계 최고의 유기농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청남도, '농업용수 관리'... 소하천, 지하수 수질조사

도 농업기술원, 도내 하천 43지점·지하수 20지점 수질 조사 실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달부터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용수 관리방안 일환으로 농업용 소하천과 영농 형태별 지하수 수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용 소하천 46지점을 조사한 결과, 하천수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10조)인 농업용수기준에 적합했다.

수질 측정은 4월(영농 전 갈수기), 7월(강우기), 10월(영농 후 갈수기) 3회에 걸쳐 법적기준 6개 항목(pH, DO, BOD, CODMn, T-P, SS)을 분석했다.

영농형태별 지하수 20개 지점(논 5, 밭 5, 시설 10)에 대해서도 4월과 7월 2회 실시한 결과, 질산태질소

(NO3-N), 산도(pH), 카드뮴, 수은, 납 등 법적기준 7항목에서 모두 지하수 수질기준(지하수법 13조) 허용치 보다 낮아 양호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최소혜 연구사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수질분석 자료 축적을 통해 농산물 및 수질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1999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농업환경자원 변동사항을 통해 매년 소하천과 지하수를 조사하고, OECD 등 국제기구 대응 및 수질보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윤철상도의원, 충남도 농산물 수출정책 체질개선 주문

감염병 사태로 해상운임 상승...물류비 지원 위주 탈피한 정책 개선 주장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 농산물 수출정책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배는 지난해 1만 305톤, 3136만 불의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배 수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간 인적 이동이 제한되면서 대면 해외마케팅이 어려워졌고, 항공운항편수 감소와 통관 지연에 따른 해상운임이 상승했다.

해운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출에 사용되는 20·40피트 컨테이너 박스 가격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임 부담은 수출 농가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 농식품에 대한 해외소비 감소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충남의 수출 효자품목 중 하나인 딸기도 항공운임이 동남아

1kg당 1400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4000원대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도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결과로 인해 2024년부터 지원이 폐지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농산물 수출환경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큰 변화가 생겼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며 "하지만 지원 사업은 점점 줄어들고 전담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현재 물류비 지원 위주의 수출 관련 지원사업을 농가 경쟁력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수산물 수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예산도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농기계 사고 예방과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는 6616건으

로 60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488명에 달했다"면서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이상기온으로 4월 초중

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의 냉해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고정화기자



함께 행복한 일·생활 균형! 대전 시민의견으로 한층 높일 것

대전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생활 균형'정책 수립 전, 다양한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대전시소 '대전시가 제안합니다'를 통해 온라인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공론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단축 근무 등 새로운 근무 방식이 이뤄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 균형의 정도를 보여주는 넌넌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4개 영역 중 대전은 일, 생활, 제도 영역의 순위는 높으나, 지자체 관심도는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이번 공론장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정책의 제를 발굴하고 실행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30일까지 '대전시소'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시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주점을 통해 음료 상품권 등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

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생활 균형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 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견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시민체감형 정책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만들어진다"며, "시민의 힘으로 함께 살기 좋은 대전이 될 수 있도록 공론장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론화 적합 시민 제안과 정책 수립 관련 의제를 선정하여, 대전시소 '시민토론'과 '대전시가 제안합니다'에 공론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현재 '초고령 사회 노인 돌봄 방안 제시'공론장이 오는 21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고정화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메스발전소(추진)

비화산지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광주소방본부 한정현 소방장 'KBS119상' 수상

12년간 8천여 회 화재·구급출동...시민 구조·구급 헌신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 구급대원 한정현 소방장이 1일 '제26회 KBS119상'을 수상했다. KBS119상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재난현장에서 화재·구조·구급활동에 공로가 있는 소방공무원을 선발해 영웅배지와 상금 등을 수여한다. 한정현 소방장은 2009년 10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12년간 8000여 회 화재와 구급출동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2월 코로나19 초기 대응 관련 국가동원령에 따라 대구

시 지원업무 및 광주시 확진자 이송업무 등을 맡았다. 또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 수여하는 하트 세이버상 9회 수상, 구급정책TF팀 참여,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에 출전하는 등 구급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 소방장은 1일 서울 KBS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들과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봉사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윤기자



우희석 경산소방서 구조대원, KBS119상 본상 영예

투철한 사명감과 국민생명·재산보호 헌신한 공 인정받아

경북소방본부는 1일 경상북도 경산소방서에 근무하는 우희석 소방장(남, 43세)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제26회 KBS119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돼 소방영웅 배지와 함께 시 상금 3백만 원을 수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희석 대원은 2009년 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2년간 화재진압, 구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최근 3년간 741건의 화재와 구조 현장에 출동해 290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특히 지난해 9월 7일에는 태풍 '하이선' 내습 시 하천 범람으로 떠내려가는 승용차량에 갇혀있던 소중한 목숨을 구하였으며, 2013년 포항 용흥동 산불 및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 각종 인명구조 활동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인명구조 전문자격, 수난구조 잠수 자격 등 각종 전문자격 취득을 통해 꾸준한 자기개발을 하고 있으며, 구조대원 특별훈련 교관활동 및 인명구조사 인증시험 평가관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였다.

우희석 대원은 "구조대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며,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에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라는 상으로 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26회 KBS119상 시상식은 4. 1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했으며, KBS119상은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시 인명구조활동에 헌신한 구조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1996년 제정됐다.

김세기기자



김선희제4대 수원시정연구원장, 4월 1일 취임

염태영 시장,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김선희(62)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4월 1일 제4대 수원시정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김선희 신임 원장은 서울시립대학교를 위생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물관리 계획 수립 관련 자문을 했고, 국가사무 지방이양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적을 인정받아 2002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1~2019년에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도시재생전문위원, 안전·도시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월 31일 집무실에서 김선희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2021년은 수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라며 "제가 가진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정근기자

통영시, "제10회 수산의 날" 육지수협장(최판길) 산업포장 수상

경상북도 포항시청 대강홀에서 열린 "제10회 수산의 날" 기념식에서 육지수협장(최판길) 조합장이 산업포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렸다. '수산의 날'은 1969년 4월 1일 어민의 날로 처음 제정되어 2012년 수산인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개최·기념하고 있다. 지난해 포항에서 개최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되면서 올해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깨끗한 바다, 희망찬 어촌, 우리는 수산인'이라는 주제로 만선과 풍요로운 어촌을 기원하는 축하공연과 대통령의 축하 영상, 수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각종 각종의 축하 메시지, 해양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영상, 언택트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여 전국의 수산 관련 기관단체와 대학, 어촌계, 귀어인, 수협 등 각계층의 온라인 참석자 100여명이 참여해 언택트 퍼포먼스를 통해 수산인의 화합과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육지수협장(최판길) 조합장은 수산업 위기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육지수협을 정상화하고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여 받았다. 강영훈기자



최민식 '한국연극연극협회 제5대 거창지부장 추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에서는 2021년 3월30일 거창연극학교 장미극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5대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장에 최민식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상임이사를 회원 전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부지부장은 김효신씨가 선 임 되었다.

과 연극도시 거창의 내실적 과제를 해결하고 추진하는 일이다. 그의 헌신적인 연극사랑과 거창문화예술 사랑의 실천을 기대해 본다.

한국연극협회 제5대 최민식 거창지부장의 취임식은 2021년 4월10일 예정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최광용기자

이번에 추대된 최민식 지부장은 거창대성고를 거쳐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1983년에 창단된 극단입체에서 고등학생시절부터 연극배우로 활동했고 이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다룬 "분지의 피",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차범석의 "사막의 이슬"등 수편의 연극에 연기자로 무대에서 활약했으며 최근에는 "극단입체"의 제작자로 거창연극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한 연극예술가이다. 또한 최민식 신임 지부장은 세계적인 3대 야외연극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의 상임이사로 거창군과 상표권 이전에 주역을 맡아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화하는데 헌신을 다한 연극인이다. 그의 딸 최리는 제53회 대중상 영화제에서 뉴-라이징상을 수상한 신예로 은막계의 떠오르는 셋별로 부상하고 있고 외아들 최혁 군도 인하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여 연기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부인 김은주(50세) 또한 민화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족이다. 앞으로 최민식 지부장이 해나가야 할 일이 많다. 우선 세계화를 위한 실질적인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필두로 "극단입체"의 중흥을 위한 육성지원



시흥시, 정왕본동 구이가 참숯불생선구이 식당 원용선 대표 우리동네 선한가게 선정

시흥시는 정왕본동 소재 구이가 참숯불생선구이 식당(오동마을로 13) 원용선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善)한 영향력을 나누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우리동네 선(善)한 가게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선한 가게 사업은 IBA(임팩트비즈니스재단)과 우리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선한 가게를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선한 가게가 더 많은 나눔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용선 구이가 참숯불 생선구이 식당 대표는 2014년부터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해오고 있어 전국 100개 우리동네 선한 가게 중 하나로 선정됐다. 특히 생활자금(100만원), 지역사회 기부물품 200만원(상당) 및 홍보활동 지원을 받는 두 곳 중 하나로 선정돼

받은 기부물품을 지난 3월 31일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합원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하기도 했다. 이날 받은 기부물품(백미 10kg 20포, 휴지 30개입 80팩)은 정왕본동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원용선 대표는 "작은 나눔을 실천했을 뿐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고 또 그 덕에 정왕본동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을근 정왕본동장은 "원용선 대표는 정왕본동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꾸준히 나눔에 앞장서시는 것은 물론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써 봉사와 기부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의미 있는 수상을 통해 전달해 주신 후원품을 정왕본동 어려운 가정을 위해 뜻깊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일본해 아닌 동해다"..서경덕,美 인도-태평양사령부에 항의

전 세계에 동해(East Sea) 표기를 널리 알리려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번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메일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난 3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 낸 성명에서 미사일이 떨어진 장소를 처음에는 '동해'라고 했다가 일본 정부의 항의에 '일본해'로 수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서 교수는 이번 메일에서 "미국 지명위원회가 동해의 공식 명칭을 일본해라고 규정하고 있어, 미국 정부기관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로 써 온 걸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대학입학 시험 과정 중 하나인 AP시험의 세계사 교재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 시작했고, 지난 2019년 뉴욕주 교육국에서는 일선학교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언급하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며 미국 사회의 변화

를 알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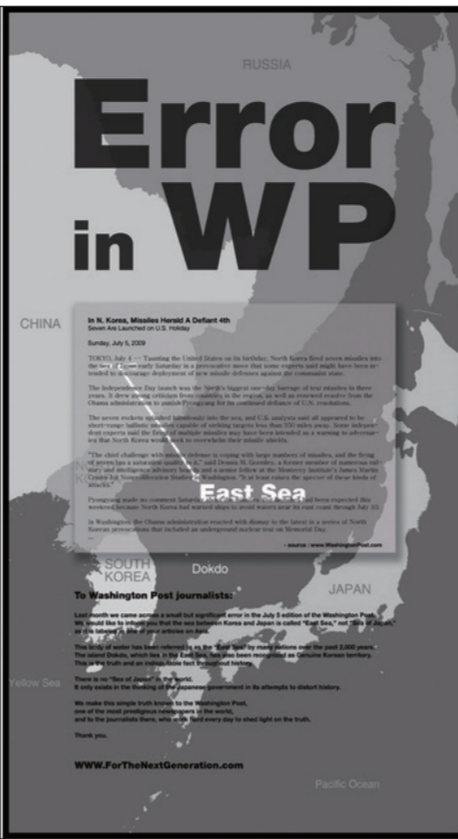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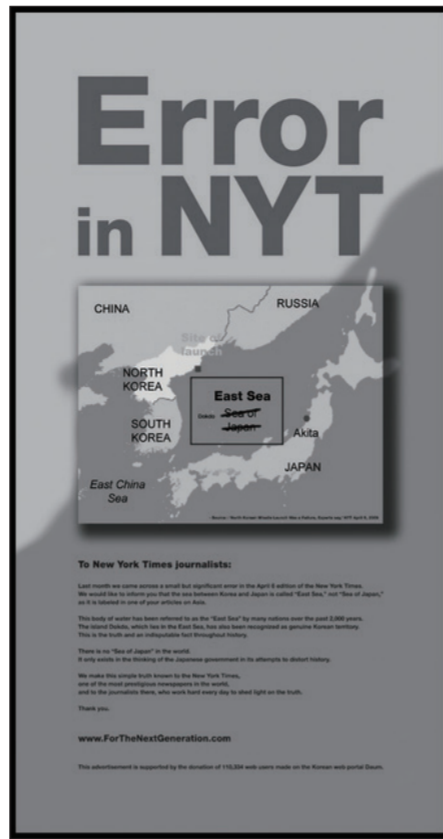
특히 서 교수는 동해에 관한 영문 자료와 영상을 메일에 함께 첨부하면서 "역사적으로 2천년 넘게 사용한 '동해' 표기에 미군도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서 교수는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에 동해표기 관련 전면광고를 꾸준히 게재해 왔고, 뉴욕 타임스케어에 영상 광고도 집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동해표기에 관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한 다국어 영상을 준비중이며 향후 온라인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경덕 교수팀은 전 세계 항공기 스크린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동해로 바꾸는 캠페인을 누리꾼들과 함께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전순희기자



대전시립합창단 앙상블음 악회 '노래하라 마음으로'

4월 9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대전시립합창단 앙상블 음악회-노래하라 마음으로'가 4월 9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무대에 오른다.

대전시립합창단이 해마다 기획하는 앙상블 음악회는 소규모 앙상블 팀을 구성해 사람의 목소리가 지닌 섬세하고 다양한 음색의 조화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앙상블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연주회는 아름다운 선율의 선곡을 비롯해 귀에 익숙한 가곡부터 오페라 합창음악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곡들을 이중창, 혼성 4중창, 혼성 8중창, 혼성합창 등 다양한 편성으로 구성해 앙상블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주회는 가곡을 연상시키듯 맑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포레(G. Faure)의 '레퀴엠' 중 '자비로우신 주님(Pie Jesu)'과 바흐(J. S. Bach)의 '성모마리아 찬가' 중 '주의 자비(Et misericordia)' 등 절제와 간결성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선율의 성음악으로 연주회의 막을 연다.

이어지는 무대는 거장 작곡가 모차르트(W. A. Mozart)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3막에 등장

하는 이중창이자 영화 쇼생크 탈출(shawshank redemption)의 삽입곡으로도 잘 알려진 '산들바람(Sull'aria)'과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중 '사랑스런 산들바람(Un'Aura Amorosa)' 등 구준히 사랑받아 온 주옥같은 오페라 곡들로 관객들의 감성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푸쉬킨의 시에 곡을 붙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김효근곡)', 그리움의 서정을 담은 '그리움 녹아내려(최진곡)', '꽃피는 날(정환호곡)' 등 감미롭고 서정적인 우리 가곡을 만날 수 있는 무대도 마련한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담은 북아일랜드 지방의 대표적 민요 '대니 보이(Danny Boy)'를 혼성 8중창으로 들려주며, 로스, 딕슨(B. Ross, J. Dixon)이 1958년에 작곡한 여성 보컬 4중주 팝송 곡 '롤리팝(Lollipop)'과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를 심금을 울리는 노랫말로 표현해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Why We Sing)'로 연주회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고정화기자

금산 비단고을 산꽃축제 4월 10일~ 18일 온라인 개최

유튜브 방송, 현장 스탬프 투어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동시 구성

올해 비단고을 산꽃축제가 오는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랜선으로 떠나는 보곡산골 산꽃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산꽃 유튜브 방송, 랜선 사생대회 등 온라인 콘텐츠와 산꽃길 스탬프 투어, 포토존 체험 등 오프라인 콘텐츠가 함께한다.

산꽃 유튜브 방송국 '산벚꽃 피는 마을'에서는 보곡산골의 산꽃개화소식과 함께 산벚꽃의 수수한 매력을 온라인으로 전달하며 금산문화예술 공연도 소개한다.

매일 오후 2시에 유튜브 채널 '금산인삼TV'로 시청이 가능하며 첫날 10일은 실시간 댓글 참여 이벤트가 마련돼 시청의 재미를 더한다.

온라인 공모전도 참여할 만하다.

랜선 사생대회 '꽃카소 모여라'는 보곡산골에 피어나는 산꽃을 자유롭게 그린 뒤 자신의 SNS계정에 올리면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마감일은 오는 4월 15일이며 총 90만 원의 상금이 마련됐다.

오는 4월 14일까지는 '우리 아기 꽃모텔 사진 공모전'이 이어진다. 봄꽃과 함께 찍은 아기 사진을 자신의



SNS계정에 올리면 되며 총 6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준비됐다.

참여 방법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금산여행 길라잡이'를 검색한 후 해당 공모페이지를 통해 참가하면 된다.

보곡산골을 직접 방문한 관광객들이 산꽃길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도록 10일과 11일 양일간은 산꽃 스탬프 투어, 반려식물 키우기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이동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산꽃 술래길에서

취식행위는 금지된다.

올해 비단고을 산꽃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산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의 '금산여행 길라잡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한편, 보곡산골은 금산군 군북면에 위치한 보광리, 상곡리, 산안리 일대를 일컫는 말로 1000만㎡의 산벚꽃 전국 최대 자생군락지로 산벚꽃 뿐만 아니라 조팝꽃, 산딸나무, 병꽃나무, 생강나무 등 아름다운 산꽃들의 군락지로 알려져 있다.

고정화기자

재)거창문화재단, 국립 합창단과 함께하는 '베르디 레퀴엠' 개최



호반서밋 라테라스

엘엠디지털(주), (주)디에프에스, 구미산단에 570억원 투자

엘엠디지털(주) 구미 3산단에 공장신설, 500억 투자 30명 고용 창출

경북도와 구미시는 1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인쇄회로기판(PCB) 생산 레이저가공업체인 엘엠디지털(주), 2차 전지 제조장비 생산업체인 (주)디에프에스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양해각서 체결에는 유재욱 엘엠디지털(주) 대표, 이동주 (주)디에프에스 대표,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재상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엘엠디지털(주)는 구미 3산단에 2021년 ~ 2023년까지 건축면적 6,600㎡(2,000여평)에 500억 원을 투자하여, 인쇄회로기판(PCB) 레이저드릴 홀 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신규 일자리 3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엘엠디지털(주)는 첨단

설비와 효율적인 가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매출액 7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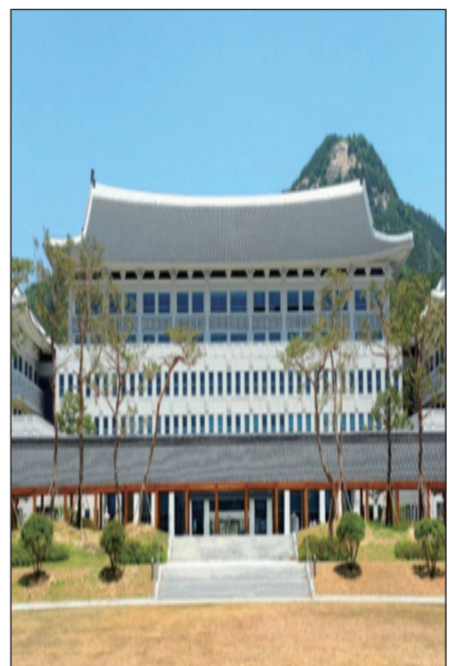
엘엠디지털(주) 유재욱 대표는 "경상북도 구미시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이 분야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디에프에스는 2차전지 제조설비 및 OLED 디스플레이 몰류 자동화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1년 개인회사(RNC) 설립 이후 2018년 법인전환,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기술우수평가인증을 이어 2020년부터 2차전지 제조장비

분야에서 확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다변화 및 매출증대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주)디에프에스는 향후 2차전지 핵심공정인 TAP-WELDING, 파우치, 각형제조설비제조를 위하여 구미국가 5단지에 대지 9,112㎡, 건축면적 6,000㎡ 공장 신축 및 설비투자에 약 100억원을(2021년 70억, 2022년 30억) 투자할 계획이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오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국내외 거래선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추가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법인택시기사 '1인당 70만원' 지원 시작...8만명 대상

3차 법인택시기사 지원사업...근속요건 3개월→2개월로 완화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생활 안정 자금으로 1인당 7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3차 지원 사업은 1·2차 지원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2021년 1월에 실시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차 지원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여행·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500억 특별용자 지원

문체부, 작년 용자금 상환유예자 거치기간 1년 재연장 등 총 2815억 금융 부담 ↓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관광업계에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소 관광업체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특별용자 지원을 하고 관광기금 지난해 용자금 상환유예자는 거치 기간을 1년 재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여행·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용자를 지원하고 지난해 용자금 상환유예자들의 상환 유예를 1년간 재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보증부 특별용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 피

해를 입은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95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8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 집행했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업계가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됐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002개 소규모 관광업체에 신용보증부 특별용자 총 1025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8.4%(157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3%(약 762억 원)를 차지했다.

문체부는 올해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의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용자 총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용자는 코로나 이전의

신용보증 지원과 비교해 지원 한도 1억 5000만 원 상향, 우대금리 1% 적용, 상환 기간 1년 연장해 3년 거치 3년 상환, 보증보험 취급수수료 0.3%p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용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특별용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올해 초에 용자금 상환 시기가 새로 다가오는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작년 상환유예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환 유예를 재연장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달 26일 1차 추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작년에 상환을 유예 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도 총 1815억 원 규모의 상환 유예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총 2815억 원 규모로 관광업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상환유예 재연장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용자를 받은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청와대 정책실장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 GDP 회복할 것"

"3월 고용지표,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 가능성" "내수·대면 서비스업은 아직 코로나 충격에서 못 벗어남"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없는 한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3월 고용지표는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 정책실장은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그림자료를 결정한 최근 한국 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된 3월 수출액이 역대 3월 기준 최고 수준인 538억달러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방역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대외 시장을 놓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액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에 있어서도 자동차·반도체·바이오와 최근 유가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과 화학의 회복세가 두드러져 보이고 중국·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리지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이제 갓 넘었고 지난해 겨울 이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며,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대략 10년만에 최대 수준까지 올라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만 코로나 충격을 거치면서 우리 기업들 중 변화를 선

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추가 상승과 함께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적응도 빠르게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 경기 또는 기업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 내수와 대면 서비스업은 코로나 충격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정책실장은 산업활동지수 추이를 설명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활동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제조업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아직 기준선인 100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여전히 100 이하에 머물러 있다"며 "여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 하순 이후부터 조금씩 수준을 높여오고 있으며 지난 2월 초반의 설을 거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방역이 조금 더 나아지면 점차 이것도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은 대표적인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6~9개월 후에 개선된다"며 "이달 중순 즈음 3월 고용지표가 나올텐데, 3월은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순희기자

지난달 수출 16.6% 늘며 500억 달러 돌파...5개월 연속 증가

역대 3월중 월 수출·일평균 수출 최고...15개 주력 품목 중 14개 ↑

3월 수출이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총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3년만에 처음이고,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3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38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6% 증가해 2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 500억달러 돌파는 역대 월 수출액 중 세 번째(1위 2017년 9월 551.2억달러, 2위 2018년 10월 548.6억달러)이며, 3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다.

월별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10월 -3.9%에서 11월 3.9% 증가로 돌아선 뒤 12월 12.4%에 이어 올해 1월 11.4%, 2월 9.5% 등 다섯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9년 1개월 만에 수출 주력 총 15대 품목 중 14개 품목이 증가하는 등 모든 품목이 두 자릿수 선전했고, 특히 9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다.

14개 품목 이상에서 수출이 플러스를 보인 건 2012년 2월 이후 처음이다. 15대 품목 중에서 디스플레이만 1.1% 하락했는데 이는 수출 단가가 하락하고 LCD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수출 품목별로는 코로나19 이후 부침을 겪었던 중간재 품목들의 반등이 눈에 띈다.

특히 원화품목들의 선전이 돋보

였는데,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회복으로 2년 3개월 만에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고 석유화학은 역대 최고 월 수출액(47억5000만달러)을 경신하며, 반도체를 제치고 이번 달 수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일반기계는 중국·아세안 등 주요 시장의 경기회복과 건설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해 역대 2위의 수출액(47억5000만달러)을 기록했다.

철강과 섬유는 각각 29개월, 6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최근 호조 품목들의 상승세도 지속했다.

반도체는 9개월 연속 증가해 이번 달 수출액(95억1000만달러)은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 올해 1분기 반도체 총 수출액은(265억9000만달러) 1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 1분기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자동차는 3개월 연속 증가해 이번 달 40억달러를 돌파하며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바이오헬스는 19개월 연속 증가 및 16개월 이상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으며, 가전 등 IT 품목들도 5개월 이상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6개 신성장의 품목들도 모두 7개월 이상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시스템반도체 9.3%, 바이오헬스 43.6%, 전기차 27.3%, 이차전지 25.3%, 농수산물 13.9%, 화장품 13.9% 등이 모두 7개월 이상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 지역별로 보면 중국 26.0%, 미국 9.2%, EU(영국 제외) 36.6%, 아세안 10.8%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EU로 가는 수출액은 역대 1위,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은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중 수출은 철강(수출 품목의 국가별 증감률은 3월 1~25일 기준, 39.8% 증가)·기계(33.9%)·석유화학(59.3%)·석유제품(151.5%) 등 중간재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충격을 받았던 지난해 1분기 부진이 기저효과로 작용해 급등세에 영향을 미쳤다.

대미 수출은 반도체(20.6%)·배터리(257.3%) 등 IT 품목과 차(17.1%)·가전(41.2%) 등 소비재 품목이 증가한 덕을 봤다.

상상 최대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제한적이었던 국내 업체의 수출이 좋았던 점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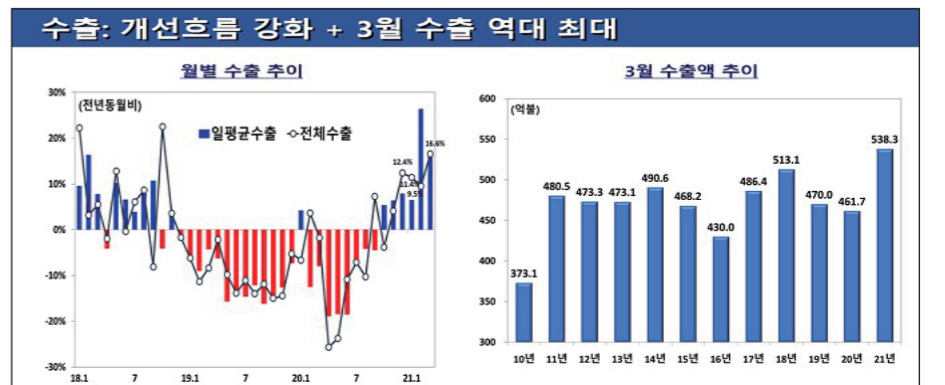
대EU 수출은 선박(237.4%)·바이오헬스(138.1%)·무선통신기기(234.6%)와 기계(18.5%)·철강(46.6%)·석유화학(27.3%) 등 중간재 수출 호조의 덕을 봤다.

수입은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가 모두 고르게 증가하며 2018년 10월(2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반도체제조장비(45.8%), 전동기·발전기(51.2%), 정지형변환기(15.2%) 등 자본재 수입이 25.7% 증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한 것도 의미가 크지만, 역대 3월 중에서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지지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이번 달 수출이 선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만식기자



울산남구,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소방시설 주차금지’ 적색노면표시 재정비 4월 말까지 완료

울산 남구는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방시설(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사업장 훼손(망실)에 대하여 4월 말까지 재정비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소화전)은 화재 시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그동안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차량 소유자의 올바른 주차 문화 인식 부족으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화재 초기진압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2019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시 법 시행 이전 대비 2배

(4만원에서 8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남구는 주민 및 차량 소유자들의 인지도도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소방시설(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사업장 훼손(망실)에 대하여 4월 중으로 사업장 재정비(적색표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방시설(소화전 등) 적색노면표시 방법은 도로의 경우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석에 적색으로 재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문구를 표기한다.

소방시설(소화전) 앞 적색노면표시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안전 신문고 앱)의 신고 대상에도 해당되어 주민들의 신고

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2019년 법 개정따라 승용차가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견인조치 등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화재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올바른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기현기자



구리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택시업체 영업권 확보’

관내 택시승강장 내 타 지역 택시 영업 대상, ‘택시승강장 질서문란 행위 근절’

구리시는 지속적인 코로나19로 택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업체 영업권 확보를 위해 택시승강장 내 불법 영업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구리시조합(대표 김연홍)에 지도·계도를 위해 사용할 차량을 지원하고 합동으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앞, 돌다리 사거리, 구리시장 등 관내 택시승강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서울택시 등 사업구역 외 영업 야간 지도 단속 ▲택시승차대 주정차 질서문란 계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및 배부 등이다.

특히 관내 택시승강장에 장시간 차

량(5분 이상)을 세워두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를 계도하며 모범적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를 위한 지도·계도 차량은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구리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와 택시승강장 내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도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업계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가 시급한 만큼 타 지역 차량의 택시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택시가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청명·한식에는 잠깐의 방심이 대형산불로! 잊지 마세요

시·군,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체계 구축하여 산불에 대응



경상남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청명·한식(4.4~4.5.) 기간 분묘개장·유골화장 수요가 급증해 소각 등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대응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청명·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하여 1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면적은 21.54ha에 달한다.

옛 풍속에도 한식에는 풍우가 심하여 불을 금하고 잔뜩을 먹었다 할 정도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이 시기 동안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09년 4월 12일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일원에 성묘객 실화에 의한 대형산불로 131ha의 산림이 소실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청명·한식일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전 시·군과 국립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소방서,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산불대응을 위해 산불방지인력 3,000여 명과 산불화헬기 7대를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시·군·권역별 지상과 공중에서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기계화산불진화대와 광역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한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산불원인 통계에 따르면 입산자·성묘객 실화 및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청명·한식일 불법 소각행위를 중점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시기 사전 대비·대응이 중요한 만큼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도민들도 산과 연결된 장소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영월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군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입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대상로, 입도주변, 산림보호순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영월국립림관리소와 함께 중점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등의 없는 입산물 채취, 굴·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입산물 채취행위,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봄철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이다.

군은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에도 나설 계획으로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권기홍 산림복지과장은 “산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입산물 굴취·채취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하여 산불예방에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대전시, 무분별한 불법유동광고물 ‘안돼~’

‘Clean-Sign의 날’ 확대 운영, 자치구 접점지역 합동단속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 속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하고자 ‘Clean-Sign의 날’ 운영을 4월부터 확대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간 ‘Clean-Sign의 날’은 단순 계도 차원의 캠페인 활동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민·관이 함께하는 범시민 건전광고문화 운동과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 정비에 대한 붐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5개 자치구가 순번을 정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Clean-Sign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성으로 10회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2~3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총 20회의 캠페인 및 정비,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하반기는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 가능성을 기대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협력하여, 접점 구역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전시·자치구·옥외광고협회·자생단체·자원봉사자 등 민·관이 협력하여, 주요간선도로, 교차로, 시민 통행이 많은 지역에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전단지,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장 정비·단속 시 경미한 사항은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 게시자는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365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전시 이희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 확대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년에 개최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찾는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보은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계도 실시



보은군은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등 위반 행위에 대해 4월부터 집중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 취지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시 10만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양도·대여·부정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하는 즉시 단속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봉화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합동점검 나서

봉화군은 4월 2일 오후 2시 봉화군민회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은 경북도청, 한국전력공사, 경찰서, 소방서, 지역방위사단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방호관리, 전기안전, 소방안전, 센터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이상반응 환자 긴급 이송체계 등을 점검하여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철저히 확인했다.

현재 봉화군은 4월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 초저온냉동고와 무정전 전원장치, 비상발전시설 등을 구비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이날 11시 엄태항 봉화군수는 군민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전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군민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며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나빌레라’ 실버층 희망→청년층 용기 전하며 전세대 움직였다! “등을 토닥겨주는 드라마”

tvN ‘나빌레라’의 여운이 실버층에 이어 청년층까지 확장되며 감동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꿈을 향해) 움직여야겠다”는 다짐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이 같은 시청층의 확장을 증명하듯 시청률도 매회 빠짐없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tvN ‘나빌레라’(연출 한동화/극본 이은미/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더그레이트스/12부작)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의 성장을 그린 사제듀오 정춘기록 드라마.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도전을 시작한 ‘일흔 발레 꿈나무’ 박인환(덕출 역)과 차가운 현실에 방황하는 ‘스물셋 정춘 발레리노’ 송강(채록 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습이 재미, 감동, 공감까지 모두 선사하고 있다. 특히 ‘나빌레라’ 4회는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시청률에서 수도권 기준 평균 3.7%, 최고 4.3%를 기록하며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닐슨코리아 제공)

그런 가운데 ‘나빌레라’는 모두가 지쳐 있는 시기에 가장 필요한 드라마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꿈을 잊고 살았던 박인환의 황혼 도전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넘어 용기와 희망까지 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모두가 늦었다가 말하는 나이 일흔에 왜 발레를 시작하게 됐냐고 질문하자 “죽기 전에 나도 한 번 날아오르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는 장면은 중·장년층의 가슴을 울리기 충분했다. 나아가 바쁜 현실을 사느라 내가 잊

고 살았던 꿈을 되돌아보게 하며 진한 여운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박인환이 “채록이는 크게 날아오를 사람이야” 등의 애정 어린 대사로 송강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장면 또한 큰 감동을 선사했다. 박인환의 발레 도전이 실버 세대에 희망을 전했다면, 박인환의 송강을 향한 대사는 곧 현실에 지친 모든 청춘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인 것. 박인환의 미소 한 번, 다정한 말 한 마디면 실제로 따뜻한 인생선배 ‘덕출’이 내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며 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이에 ‘나빌레라’는 노년층부터 청년층까지 전 세대에 통하며 안방극장을 파스함으로 물들이고 있다.

시청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나빌레라”는 내 등을 토닥겨주는 드라마, “날아오를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분들 모두 힘내세요”,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좋습니다”, “꿈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저에게 너무 와 닿는 작품입니다. 박인환 배우님 건강하시고 끝까지 파이팅해주세요!”, “국민드라마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처 입고 꿈을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드라마 같아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나빌레라’”, “곧 마흔인데 저도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덕출아버지 따뜻한 연기 감사해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tvN 월화드라마 ‘나빌레라’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모범택시’ 이제훈표 K-다크히어로가 흥미로운 이유

배우 이제훈이 선보일 ‘K-다크히어로’ 연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BS ‘펜트하우스2’의 후속으로 오는 4월 9일(금)에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배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모범택시’는 사회고발 장르물에 최적화된 박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범죄 액션 오락물에 특화된 오상호 작가가 대본을 집필, 한국형 다크히어로물의 진수를 선보일 웹툰의 사이다 액션 드라마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모범택시’를 통해 데뷔 이래 첫 액션 히어로 연기를 펼치는 이제훈의 변신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훈이 연기하는 ‘김도기’는 특수부대 출신이자 ‘무지개 운수’의 택시기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을 무력으로 단죄하는 악당 사냥 전문가. 따라서 이제훈이 짜릿한 액션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대리만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고 있다.

한편 이제훈표 다크히어로가 단순 액션히어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를 더한다. ‘모범택시’ 속 이제훈은 소위 변신 장인, 평범한 일반택시기사로 활동하는 일상 모드부터, 정체를 숨기고 타깃에 접근해 사냥을 위한 밧을 놓는 위장 모드, 본격적으로 악당을 응징하는 사냥 모드에 이르기까지 팔색조 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이제훈의 위장 모드는 각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별미가 될 전망이다. 한국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악당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매번 톤앤매너를 달리하는 이제훈의 변장과 과묵하고 시크한 ‘본캐’의 성격과는 사뭇 다른 ‘부캐’들의 활약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모범택시’ 측은 “‘모범택시’를 통해 종합선물세트처럼 다채로운 이제훈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운전 실력, 위장술, 맨손 액션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역대급 다크히어로를 만나실 수 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는 ‘펜트하우스2’ 후속으로 오는 4월 9일(금)에 첫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유재석 新 예능 ‘컴백홈’ 첫 방송, 마마무 화사-휘인 첫서울집 ‘사당동 옥탑방’으로 컴백홈!



KBS 2TV 유재석 新 예능 ‘컴백홈’이 첫 방송을 앞둔 가운데 마마무 화사-휘인이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청춘시절 험난한 서울살이를 처음 시작한 사당동 옥탑을 찾아간다.

오는 4월 3일(토)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KBS 2TV ‘컴백홈’(기획 김광수/연출 박민정)은 스타의 낯선 서울살이 첫걸음을 시작한 첫 보금자리로 돌아가 그곳에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청춘들을 만나고 응원을 전하는 리얼리티 예능. 이 가운데 ‘컴백홈’ 1회에서는 마마 무 화사와 휘인이 출연해 지금의 ‘민들레’를 탄생시킨 사당동 옥탑방 시절을 돌아보고, 현 집주인에게 로망의 자취방을 선물하며 그의 서울살이를 응원할 예정이다.

화사와 휘인은 학창시절부터 절친이자 가수의 꿈을 품고 전라북도에서 함께 상경해 같은 팀으로 데뷔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전주의 딸들’. 두 사람이 부푼 꿈을 안고 서울살이 첫걸음을 시작한 동네는 바로 동작구 사당동이다.

촬영 당일, 화사는 “연습생 시절 사당동 옥탑에서 4명이 합숙을 했다”며 “톱 아이돌” 마마무의 소박한 시작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화사-휘인은 ‘서울 첫집’ 방편

에 앞서 한껏 들뜬 마음을 드러내며 집과 동네에 대한 생생한 에피소드들을 꺼내 냈다. 이 중 화사는 자타공인 먹방여신답게 입만 열면 줄줄이 쏟아지는 사당동 맛집 이름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휘인은 집 근처 공원을 떠올리며 “매일 출근기 3천개 하면서 울던 곳”이라면서 ‘눈물의 다이어터’ 시절을 고백해 폭소를 유발했다.

한편 이날 마마무는 아이돌 합숙 시스템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 냈다는 후문. 이때 화사와 휘인은 “합숙 추천한다”, “아이돌 합숙은 필수”라고 주장하며 뜻밖의 이유를 제시해 유재석-이용진-이영지를 경악케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마마 무 화사-휘인이 아닌 연습생 안혜진-정휘인이 꿈을 키우던 ‘사당시절’은 어땠을지, 또한 현재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또다른 청춘이 꿈꾸는 새로운 옥탑방은 어떤 모습일지 ‘컴백홈’ 첫 방송에 기대감이 증폭된다.

한편 자신만의 방식으로 희망을 찾아가는 이 시대 청춘들의 방구첼린지가 시작될 KBS 2TV 유재석 新 예능 ‘컴백홈’은 오는 4월 3일(토)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배우 민우혁, 홀로서기 나선다! ‘이음 컴퍼니’ 설립!

뮤지컬 배우 민우혁이 홀로서기에 나선다.

민우혁이 최근 소속사 ‘이음 컴퍼니’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알렸다.

본인만의 색깔을 담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민우혁은 ‘이음 컴퍼니’라는 사명하에 회사 전반을 운영하며 열정을 내비칠 예정이다. 그는 뮤지컬 장르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을 예고하며 아티스트 민우혁이 되길 바란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우혁은 “‘이음 컴퍼니’를 설립함과 동시에 향후 무대와 브라운관의 경계를 넘은 폭넓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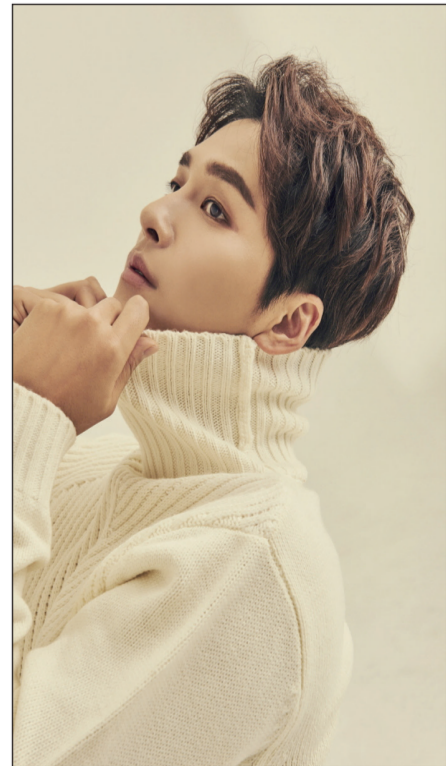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통해 가창력과 연기력을 입증하며 일약 뮤지컬 스타덤에 오른 민우혁은 뮤지컬 ‘벤허’, ‘프랑켄슈타인’, ‘지킬 앤 하이드’ 등을 통해 작품 성공 가도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또한 KBS ‘불후의 명곡’, ‘살림하는 남자들’ 등 예능프로그램과 JTBC ‘제3의 매력’, MBC ‘하차있는 인간들’에 출연해 아티스트이자 배우로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민우혁은 오는 4월 개막하는 뮤지컬 ‘광주’의 주인공 박한수 역으로 출연을 앞두고 있으며, 뮤지컬 ‘투란도트’를 스크린으로 옮긴 동명의 영

화의 촬영에 입할 예정이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 제작하는 영화 ‘투란도트’에서 투란도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수수께끼의 벽에 칼을 찌는 왕자 ‘칼라프’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민우혁은 이후 여러 작품을 검토하며 시간 불 수 없었던 또 다른 캐리커로 다채로운 매체를 통해 대중들을 만날 계획으로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순희기자



이현균, ‘더 페어’ 출연…‘남규리-최병모와 호흡’

배우 이현균이 tvN ‘더 페어’에 출연한다.

그는 7일 방송을 앞두고 있는 tvN 단막극 ‘드라마 스테이지 2021’의 ‘더 페어’(극본 추현정, 연출 민정아) 속 ‘강민욱’ 역으로 활약을 예고했다.

‘더 페어’는 새로운 형벌 제도인 가상 범죄 프로그램(VCP)을 통해 일곱 번의 살인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범인을 단죄하려는 주인공의 정의실현극이다.

극 중 이현균은 재소자의 상담 및 교화를 진행하는 리본 센터장 ‘남주철’(최병모 분)의 곁에서 그를 정성껏 도우며 VCP 교정을 반대하는 ‘민욱’역을 맡았다. 어두운 과거의 소유자인 그는 방황하던 당시 교도관으로 근무 중이던 주

철과의 인연으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신념 있는 캐릭터인 그는 VCP 교정 찬성 측인 ‘류희선’(남규리 분)과의 대립을 통해 극의 긴장감을 더 할 예정이다.

최근 tvN ‘나빌레라’ 속 ‘젊은 덕출’로 분하며 짝나가는 캐릭터를 완벽 소화하고 있는 그는 영화 ‘1987’, ‘미스트’, ‘어린 의뢰인’ 드라마 ‘나의 나라’, ‘닥터 프리즈너’, ‘라이프’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팔색조 같은 매력으로 안방극장에 진한 여운을 선사해 바 있다.

한편 ‘더 페어’는 4월 7일 밤 12시 10분 tvN에서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광명시청 검도팀 배환진 선수 SBS배 전국검도왕대회 일반부 '우승', 이호진 선수 3위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검도팀이 2021년 SBS배 전국검도왕대회에서 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30일, 31일 양일간 치러진 이번 대회 일반부 부문에서 배환진(남, 35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고, 이호진(남, 28세) 선수가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각 지역에서 선발을 거친 64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일반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배 선수는 첫날 32강전에서 최경제 선수(인천광역시청)를 1대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이후 이호성(무안군청), 김현영(부천시청)을 차례로 누르고 4강에 진출했다.

4강전에서는 같은 시 소속 이호진 선수를 1대0으로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으며, 정준호(인천광역시청)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머리치기로 선제 득점을 올려 앞서다가 똑같은 머

리치기를 내줘 1대1 동점을 허용한 뒤 연장전 접전 끝에 노련미를 발휘하며 벼락같은 머리치기를 성공시켜 2:1로 우승을 차지했다.

팀의 막내로 2013년 광명시청에 입단한 배 선수는 "스즈 초반이라 성적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강도 높은 동계 전지훈련과 체력 강화훈련 덕분에 전국검도왕에 오르게 된 것 같다"며 "명장이신 정병구 감독님의 지도아래 후배들과 함께 지금의 팀 분위기를 꼭 이어가코로 나19를 뚫고 연승 행진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1일 오후 선수단과 간담회를 갖고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힘을 준 것은 물론 광명시 명예와 위상을 드높여 줘서 감사드린다"며 "앞



으로도 부상 없이 열심히 훈련하여 코로나19를 베어내고 대 대회에 집중하여 목표한 바를 꼭 이루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2~25일 충남 청양에서 열렸던 제25회 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통합부 개인전에서 정중현(남, 25세) 선수 준우승과 함께, 개인전 3단부에서도 원건희(남, 25세) 선수가 3위를 일구어내 실업검도 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전순희/기자

여자 축구대표팀, 올림픽 예선 중국전 입장권 5일부터 판매

SHINSEGAE Emart 후원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 1차전

티켓오픈

티켓오픈
04.05(월) 14:00 인터파크티켓

경기장
대한민국 vs 중국 | 04.08(목) 16:00 고양종합운동장

관중	구역	가격(원)	할인
일반석(총)	E1-E12	10,000	장애인 50%
일반석(왕장)	S3	10,000	-
휠체어석	E2-E5 내 해당 좌석	5,000	-

- KFA 선에매 및 할인 없음
- 현장 티켓 판매 없음, 전 좌석 모바일 티켓으로 운영
- 경기장 개문: 2시간 전 (14:00)
- 일반석(왕장)은 원정팀 서포터에 한하여 구매 가능
- 입장티켓 서포터 중 일반석(총) 구역 구매자는 경기장 출입 불가
- 방역 체크 > QR코드 인증 > 소지품 검사 > 티켓 검사 > 입장
- 입장 시부터 경기 중 육성응원 금지, 음식물 반입 및 취식 금지
- AFC COVID-19 방역 지침에 따라 관중의 재입장 불가
- 방역지침 미준수 시 관람 없이 퇴장 조치

고양시 이재준 시장, 빙상·테니스팀 대회 입상자 격려

고양시가 4월 1일 고양시청 열린 회의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 빙상 및 테니스팀 선수단을 초청해 대회 입상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빙상 선수단 7명, 테니스 선수단 5명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 모두 축하드린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단은 고양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며 "다음 대회에서도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격려인사를 전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힘을 준 것은 물론 광명시 명예와 위상을 드높여 줘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상 없이 열심히 훈련하여 코로나19를 베어내고 대 대회에 집중하여 목표한 바를 꼭 이루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빙상팀과 테니스팀은 지난 3월 '제36회 회장배 전국남녀소프트스케이팅 드스케이팅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제1차 한국실업 테니스연맹전&전국종별테니스 양구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만식/기자



최혜진, 제천 백운초에 재능 기부

4월 1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지난 31일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백운초등학교에서 골프환경 조성 프로젝트 중 KLPGA와 함께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KLPGA with YOU'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KLPGA with YOU'는 골프환경 조성 프로젝트 'KLPGA TO YOU'를 통해 연습장 및 골프용품을 기증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금일 행사에는 최혜진(22.롯데)이 2019시즌 삼금왕 자격으로 참석하며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골퍼 선수를 꿈 꾸는 유소년에게 직접 골퍼레슨을 진행했다.

최혜진은 "2019시즌 삼금왕 자격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 보람차다.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두 번 참가했지만, 귀여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즐겁고 흥미롭다."라고 밝히면서 "아이들을 통해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좋았다. 초등학교에 이렇게 훌륭한 골프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앞으로 한국골프 미래가 더욱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참가 소감을 전했다.

2019년에는 4개 학교에서 총 16번의 'KLPGA with YOU'를 KLPGA 제1기 재능기부단과 함께 진행했고, 지난 23일(화)에는 박현경(21.한국도지신탁)이 강화 삼성초등학교에서 골퍼 꿈나무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전순희/기자

대한축구협회는 중국과 맞붙는 여자축구 도쿄 올림픽 아시아 예선 플레이오프 1차전 홈경기 입장권을 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림픽 본선 진출권 1장을 놓고 벌이는 한국과 중국의 대결은 오는 8일 오후 4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입장 관중 숫자가 제한되며, 동측 홈팀 관중석과 남측 원정 관중석이 운영된다.

좌석은 등급 구분없이 일반석과 휠체어석만 판매한다. 홈팀 관중석으로 운영하는 E1~E12 구역과 원정팀 관중석인 S1~S5 구역 모두 가격은 1만원이다. E2~E5 구역에 설치된 휠체어석 구매자와 장애인 50% 할인된 5천 원에 살수 있다.

티켓은 5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판매된다. 현장 판매는 없으며, 모든 좌석은 모바일 티켓

으로만 운영된다.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8일 오후 2시부터 운동장에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과 양국 팬들의 충돌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관중들은 상대편 좌석 구역으로 입장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또 자국을 응원하는 복장과 물품을 갖춘 채 상대팀 관중석 티켓을 구입해 경기장 출입을 시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기장 출입구에서는 온도 체크와 QR코드 인증,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 경기장 안에서 육성으로 응원할 수 없고,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먹는 것도 금지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관중에 대해서는 환불 없이 퇴장 조치할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창원시청 레슬링팀, 제39회 회장배 전국레슬링대회서 좋은 성적 거둬

창원시는 창원시청 레슬링팀이 지난 3월 29일부터 3일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회장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남자 그레코로만형 72kg급에 출전한 오상훈은 결승에서 나명길(함평군청)에게 기권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 자유형 55kg급 결승에서 장윤진은 정은수(충북보건

대)에게 8-0 폴승을, 여자 자유형 62kg급 결승에서 정혜지는 김보배(평창군청)에게 4-3 판정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상훈을 지도하고 있는 노현수 남자레슬링부 감독은 "이번 대회가 올해 첫 출전한 대회이기도 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준비 기간도 짧아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확실히 능력 있는 선수들이라 긴장

을 하지 않고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한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둔 거 같다"고 밝혔다.

장윤진, 정혜지를 지도하고 있는 박명석 여자레슬링부 감독은 "개인전 우승으로 창원시청 위상을 드높였다.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창원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지구도 살리고, 건강한 일자리도 만드는

광명형 그린뉴딜을 시작합니다



기후에너지 분야
창업 지원



전국 최초
기후에너지과
신설



도시재생·개발사업
저탄소 방안 추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안양천
초화원 조성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친환경 단지 조성



그린 뉴딜
과제 발굴

